



(사)탁틴내일 20년



(사)탁틴내일 20년 1995
20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18
대표전화 : 02) 338-7480 팩스 : 02) 3141-9339
www.tacteen.net





발행일 : 2015년 3월 19일

발행처 : (사)탁틴내일

발행인 : 최영희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18

전화 : 02) 338-7480

팩스 : 02) 3141-9339

홈페이지 : www.tacteen.net

디자인 : 디자인 내일

이책의 저작권은 탁틴내일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탁틴내일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재를 금합니다.



20th
탁틴내일 20주년
Anniversary

1995
2015



책머리에

벌써 20주년? 스스로도 놀란다. 자료집을 내기위해 흠어진 사진자료를 보니 실감이 났다.

노태우 전대통령집 앞으로 몰려간 비자금 항의시위 사진에 있는 품속의 아기는 군대를 갔고, 포대기에 싸여 엄마 등에 업힌 아이는 성숙한 여대생이 되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며 성장해서 곳곳에서 소중한 존재로 일하고 있는 얼굴들은 보람이고, 그 뜨겁던 열정과 많은 재능을 접어두고 해외로 떠난 얼굴들엔 뭉클해진다. 20년 10년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들의 꽃다운 얼굴들은 더 반갑다.

5년, 10년을 정리해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 후회했다. 밀쳐두었던 20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찾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안타깝다. NGO활동 자료집은 서로 공유하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매개체다. 특히 NGO활동은 함께할 때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사)탁틴내일 만의 기록이 아니다. 함께해준 수많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합성이 담겨있다. 활동을 정리하면서 혹시 좁은 눈으로 우리만 들여다보고 쓴 것은 없는지 조심스럽다. 부족한 점은 너그럽게 용서를 빈다.

우리활동이 위기의 아이들에게 집중되다보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덩석 뛰어들어 허우적거린 적도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문가들과 동료단체들이 진심으로 도와주어 결실을 맺고 확산시킬 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이제 어설피게나마 20년을 정리하다보니, 생각은 있었으나 손이 미치지 못한 일들이 봄별의 새싹처럼 쏘옥쏘옥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가야한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떠나야하는 아기들의 인권에 방점을 찍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편견에 고통받는 미혼모와 아이들의 당당한 삶, 스스로 살아보려는 절박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인권, 가정과 대안가정인 시설에서 학대받는 아이들, 유치원과 저학년 아이들의 또래친구 성추행시 대처방식개선, 부모와 아이들에게 가정을 돌려주는 저녁이 있는 삶을 찾는 것 등도 탁트인 내일을 위한 과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움츠러드는 목소리에는 마이크가 되자. 바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다. 사)탁틴내일은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지켜봐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최영희

인사말

20대,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되고 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혼자 고립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며 세상 속에 사는 삶,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을까?
위험과 경쟁 '한사람'의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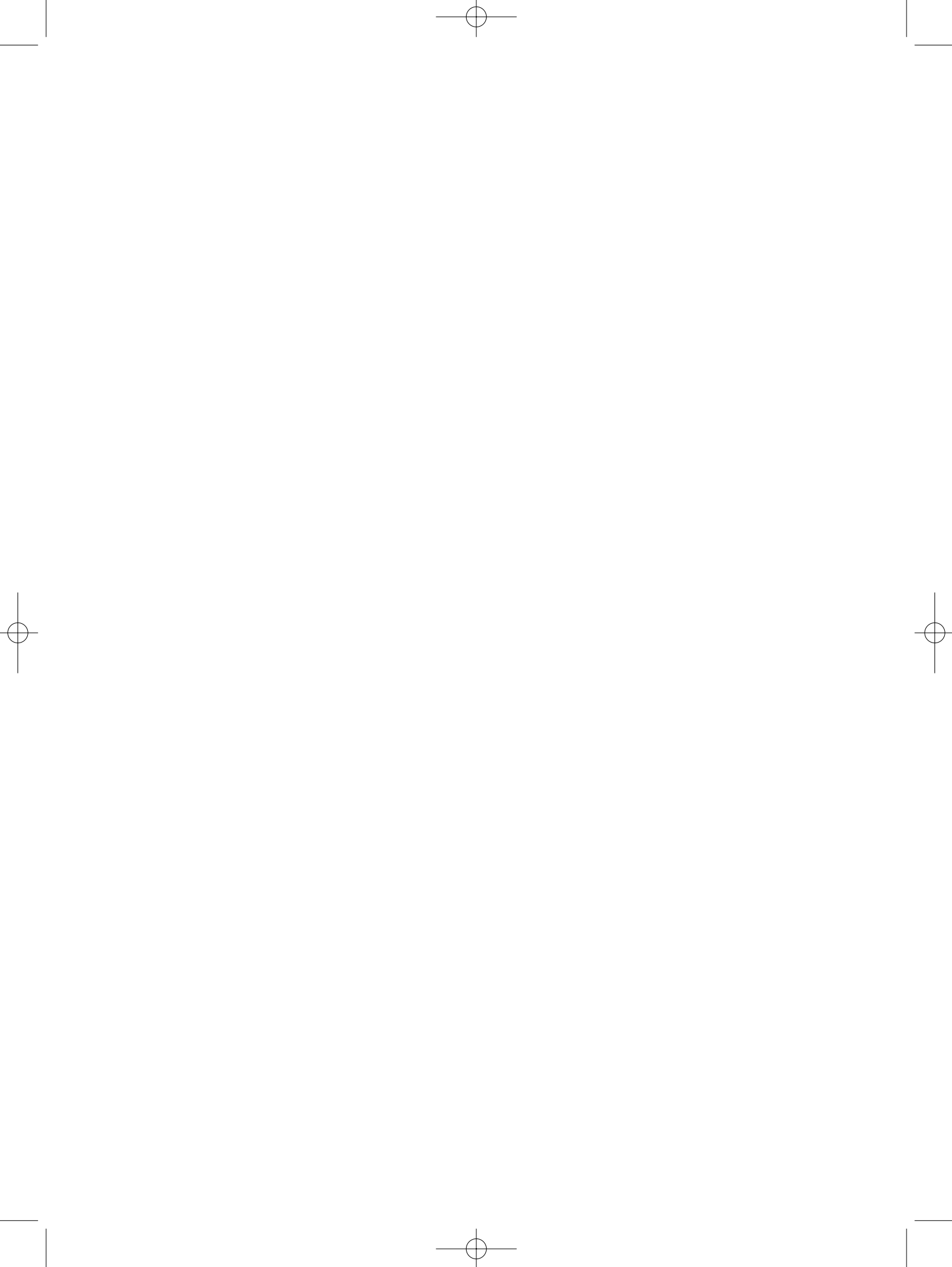
'우리'가 모여서 '해보자!'
내일신문여성문화센터가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20년,
아이를 들쳐 업고 시작했던 '일당 백'이라 자부하던 아줌마들
청소년들이 알을 깨고 숨은 자기만의 끼를 뽐어 낼 때
함께한 '우리'는 힘들어도 새록새록 힘이 나고
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들이 해낸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잘 한 것도 있고, 용두사미가 된 것도 있고, 더 잘하는 곳이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토대들 만들어 반석을 만들어주셨던 대표님들, 이사장님들
도움을 주신 분들, 함께한 활동가분들, 청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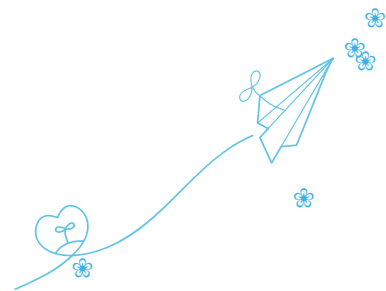
20년의 기록을 정리해가면서 더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이 함께 하기에 이 자료집이 세상에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대표 이영희



Contents

20th
Anniversary
of Tacteen Naeil



책머리에 2

탁틴내일 이사장
탁틴내일 상임대표

축사 6

Congratulatory Message

탁틴내일 20년 역사 14

제1장 시민운동

제2장 청소년 성인권·성보호 운동

제3장 새로운 성교육의 모델 개발 및 전파

제4장 청소년과 함께 한 활동

제5장 부모와 아기 중심의 출산육아문화바꾸기 운동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90

탁틴내일 본부

군포탁틴내일

수원탁틴내일

안산탁틴내일

전주탁틴내일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꿈꾸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달려오신
'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워
내기 위하여 우리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아동·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활동
하는 '탁틴내일'이 있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때론 시련과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딛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꿈을 펼쳐 가길 소망
합니다.

더불어 지난 20년 간 '탁틴내일'에서 마음을 다하여 일해오
신 활동가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탁틴내일'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따
뜻한 지원을 보내드립니다.

강지원

강지원 변호사



스무살, 성년이 된 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탁틴내일은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고
청소년 스스로 중심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용감하게 전진해 온 탁틴내일의 발자
취가 앞으로의 아동·청소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
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나아갈
탁틴내일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김동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탁틴내일이 7-80년대 사회운동을 하
신 젊은 엄마들이 모여 '삶'과 '세상의'
변화를 고민하고 아동·청소년의 '내
일'을 걱정하면서 모인 단체라는 것이

새삼 제가 고민하는 아동·청소년의 교
육과 수련활동과는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증진과 인권보장을 위해 열심
히 일해오신 이곳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까에 열
과 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들의 숨 쉴
공간인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안전과 생명
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이 실시되도록 유관기관
경기도교육청의 수십 번의 질의를 통하여 이제 약간의 개
선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틴내일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년으
로 진입하는 시기이고 이 청소년들이 그렇듯 자기의 삶
을 고민하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것과 같이 탁
틴내일도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희망적인 비전과 안전성
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 지

Congratulatory Messages

축
사

역의 아동·청소년 안전망이 더욱 철저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심의 열정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열어주신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님과 이영희 상임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해주신 활동가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미경

(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기쁜 날입니다. (사)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영희 이사장님, 이영희 상임대표님과 활동가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이 탁틴내일에서 건강한 에너지로 한 걸음씩 건

고 있기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탁틴내일과 한국여성의전화 모두는 적지 않은 세월,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약자인 청소년, 여성을 위한 활동에 전념해왔습니다. 세세한 이야기 하나하나는 다르지만 커다란 한마음이 같은 귀한 동료들 오늘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축하합니다!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탁틴내일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척박했던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기반을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20년, 이 시대의 가장 민감한 감성과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톡톡 튀는 감성으로 대변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성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 탁틴이 중심에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상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부천 소사 지역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체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사)탁틴내일의 최영희 이사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 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약관(弱冠)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탁틴내일의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수고하고 애써주신 탁틴내일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다가올 20년도 탁틴내일이 아동·청소년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길 기원합니다.

김혜경

(주)도서출판 푸른숲 대표이사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 아무도 굳이 나서지 않는 일을 해온 20년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발로 뛰고 사랑으로 쓰다듬고 귀 기울여, 우리 귀한 아이들 마음에 고운 씨앗 심었습니다.

다. 그 씨앗의 힘으로 단단하고 건강한 시민이 되어, 어디
서든 또 고운 씨앗을 심어갈 상상에 행복합니다. 눈에 보이
지 않는 일. 묵묵히 해온 탁틴내일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탁틴내일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아
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조
성과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애써 오신 최영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현장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탁틴내일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50여
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활발한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무관심과 편견에서 관심과 공
감으로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탁틴내일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먼저 (사)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5년 내일
신문 여성문화센터의 발족으로부터
잉태된 탁틴내일은 지난 20년 동안 우
리 사회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과 복

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교육은 물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등
건강한 청소년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의미 있는 청소년운동의 성과를 내
셨습니다. 유관 청소년단체로써 커다란 감사와 격려의 박
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주인되는 건강
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첫마음으로 계속 정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윤인순

국회의원



(사)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을 위
해 그동안 최영희 이사장님과 임직원
분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

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
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의 권익증진과 건강
한 성장을 위한 (사)탁틴내일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하
겠습니다.

민병성

(재)푸른나무 청예단 이사장



청소년의 내일을여는여성센터로 출발
하여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청소
년과 함께 해 주신 (사)탁틴내일의 20
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함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스무해 동안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땀과 열정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관
점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청소년의 눈
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그들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이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바랍니다.

박영미

(주)소디움파트너스 대표이사



우리 2세대의 밝은 오늘과 내일의 꿈
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사)탁틴내일
의 20주년 성년식을 맞이하기까지의
노력과 이루신 성과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보다 전문적인 실행과 네트워크를 가동하게 될 다음 20년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창조적 에너지로 우리 사회의 더 큰 힘을 주시리라 믿으며 존경과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청소년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그들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이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동·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그 꿈과 함께 해온 (사)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호를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었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초석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주년을 넘어 창립 50주년, 100주년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의진입니다.
(사)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탁 트인 세상에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경

(사)사람과평화 대표



탁틴내일이 이제 명실공히 20주년이라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

어 오신 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 더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뒤돌아온 시간에 덧붙여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더욱 걸맞은 청소년운동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승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최고위원 유승희 국회의원의입니다.
(사)탁틴내일이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 학교교육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청소년들이 당연한 권리인,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과 직장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고, 남성 청소년 역시 임금 착취 등 각종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에 여성과 이동, 청소년을 위해 끊임없이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겨오고 있는 '탁틴내일'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여성과 이동, 청소년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생

청소년지도자연합회장



웅인푸른꿈청소년쉼터 원장

‘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성문화발전과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클린인터넷 네트워크운동 등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신 최영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손과 발이 되어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듬어 주신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과 학교, 사회 환경 속에서 양육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야 할 청소년은 가정의 빈곤, 가족해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정부의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되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탁틴내일’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이제 성년이 된 ‘탁틴내일’이 변함없이 청소년사랑과 건전육성을 위해 사회양극화와 학교부적응·가정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망이 되어 주시기를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위향상과 누려야할 권리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호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지난 20년 동안 ‘(사)탁틴내일’은 다양한 실천과 운동을 통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간 애쓰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변화하는 세계시민이자 인권의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폭력근절을 위해 애써온 (사)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의 ‘내일’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이

자 희망입니다. 그동안 (사)탁틴내일이 추진해 온 청소년 대상 성교육콘텐츠 개발과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성범죄 근절 캠페인 진행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와 안전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밝은 내일을 위한 문화 개선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세상과 꿈꾸고 나누고 소통하는 (사)탁틴내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년 한국 사회에 탁틴이 있어서 아이들의 내일을 함께 꿈 꿀 수 있었습니다.

탁틴의 뜨거운 열정과 넓은 품으로

아픈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탁틴!!! 파이팅!!!

이미경

국회의원



탁틴내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성폭력상담관련 사업, 성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듬고,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과 청소년 사이의 학교폭력 근절에 앞으로도 탁틴내일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의 선봉에 선 탁틴내일에게 무한 지지를 보내며,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경

(사)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소장



이름만 들어도 시원하고 유쾌한 '탁틴'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니다. 탁틴의 설립 목적에서

주창하는 것처럼 여성과 청소년들은 '스스로 중심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기보다는 주로 보호의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할만한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쟁거리가 되고, 폭력의 피해자들이 지지와 응원을 받기보다는 편견 속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탁틴이 지난 20년 동안 펼쳐온 성교육과 상담, 그리고 여러 문화 사업 등은 우리 사회 변화의 물꼬를 터왔습니다.

앞으로도 탁틴이 더욱 신명 나게 활동을 펼쳐 가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자스민

국회의원



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 활동, 청소년 문화사업, 학교 폭력예방활동, 양성평등 가족 만들기 운동,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캠페인등 다각적인 방향

에서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탁틴내일! 창립 20주년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탁틴내일이 있기에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미래가 한층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탁틴 내일 파이팅!

이민자

(사)강화나들길 이사



참뜻 세워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무 해를 헤쳐 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주십시오. 열심히 뛰어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늘 응원합니다.

이상경

(재)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20년 전 탁틴내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엔 다친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도 방법도 크지 않았습니니다. 그동안 탁틴내일은 그 척박한 토양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모우고 현명한 방법을 찾고 전

문가들과 협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23년 첫 번째 맞는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선생님께선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 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썩(어린이)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 버립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말들이 유효하다는데 좌절하게 되지만, 여기 탁틴내일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



‘제2의 탄생기’라고도 불리는 청소년기는 어떤 가치관과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적잖은 진통도 겪으면서 청소년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새롭게 태어

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는 ‘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리더라도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가는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미경

아름다운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모임

(GSGT) 회장



이 땅의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와 교육을 위해 진실한 사랑과 열정으로 20년 외길을 달려오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신 탁틴내일의 성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오신 최영희 이사장님과 탁틴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세상을 향한 울긋한 목소리가 이제 더 큰 메아리가 되어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탁틴내일의 웅대한 도약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로 소외되고 문제시될 때, 탁틴내일은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문제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낸 (사) 탁틴내일의 열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모하리만큼 앞장서서 아동·청소년의 내일을 만들어 온 (사) 탁틴내일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뜨거웠던 20년의 노력과 열매가 미래세대의 든든한 반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조순실

(사)들꽃청소년세상 서울지부대표

탁틴내일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년간 한결 같이 청소년들 곁에서 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때는 탁틴내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감수성과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늘 앞장서주십시오. 들꽃청소년세상은 탁틴내일이 있어 뒀다 든든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조중신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탁틴내일,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이 사회의 희망 척도입니다.

창천동에서 퍼져나간 희망의 향기가 이 땅을 맑고 따뜻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힘 있게, 이 운동을 펼쳐나가기 바랍니다.

한경희



(주)한경희생활과학 대표

탁틴내일의 20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5년 탁틴내일의 창립은 대한민국 이 고도성장을 거치며 급격히 변화한 아동·청소년 성문화를 공론화한 선구

자적 첫발이었습니다. 관련 법 제/개정 운동, 범국민 교육 캠페인을 통해 보여준 탁틴내일의 소명의식은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 조부모와 형제자매와의 놀이가 사라진 오늘날 모든 어른들이 공감하고 갖춰야 할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희생활과학 또한 우리나라의 새싹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탁틴내일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함중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온 탁틴내일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로 삶을 이끌어가고 인류 가치를 구현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탁틴내일의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홍원의



(주)프로본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탁틴내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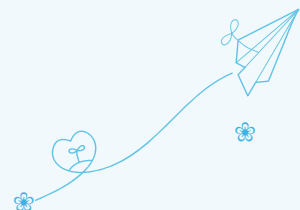
탁틴내일의 지난 20년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온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건

전한 청소년 성문화와 가치관 형성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

의 성보호를 위한 긴 시간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세계 청소년들의 성보호를 위한 노력, 한줄서기운동 같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들은 우리사회에 오래동안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탁틴내일의 20주년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초석이 되는 디딤돌의 역할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Congratulatory Messages

about
20th Anniversary



타티나일
20년의
역사

Anniversary

th

<탁틴내일>이 걸어온 길

95년 3월,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로 역사적인 첫걸음

탁틴내일의 전신이자 모태가 된 단체는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였다.

1992년 치러진 대통령선거로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사회변화를 꿈꾸며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들은 밥도 먹고 민주주의와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내일신문을 창간했다. 어느 자본가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5천여명이 십시일반 소액주주운동으로 창간 자본금을 모았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생활인들의 정성으로 내일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이 소액주주들 중에는 여성도 많았다. 이들은 열정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가족이었다. 이들도 당연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했다.

1993년 10월 9일 내일신문이 창간되고 초기의 미숙함을 극복하자 여성주주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전국 지역사업부의 운영위원들과 가족들이 적극 참여했다. 더 낮게 더 넓게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슈를 찾아 내일신문과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추진위원회는 1994년 10월 8일 200여명의 참여 속에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은 <오늘을 사는 여성>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조명하고 ‘여성이 먼저 변하는 운동, 남성과 함께 넓어지는 운동, 사회 속에서 높아지는 운동’을 표방하며 자신 있고 당당한 여성의 삶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95년 3월 1일 세계일보 대강당에서는 전국에서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주부들과 사무직 생산직 여성 301명은 창립일인 3.1절의 의미를 생각해 <301 가족합창단>의 장엄한 합창을 선보였고 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창립을 자축했다.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는 명칭답게 문턱은 낮추되 내용은 깊고 폭을 넓혀, 여성들이 직장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여 정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장이 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측사에 나선 서울대학교 이수성 총장은 “정치를 비롯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권모술수와 부도덕한 행태가 판치는 정치권에서도 도덕성과 투명성의 장점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는 창립대회 이후 성남, 부산, 안양, 광주, 안산, 익산, 수원, 서울 등 각 지역도에서 추진위원회 단계를 밟고 속속 여성문화센터 창립대회가 줄지어 개최하였다.

대중운동을 표방한 우리는 낮은 단계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노태우대통령비자금등

<탁틴내일>이 걸어온 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 '여성입욕보조기를 둘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규정을 핑계로 공공연하게 매매춘을 하고 있는 터키탕을 방치를 넘어 양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문제, 화려한 포장과 다양한 향료 첨가로 교묘한 영업망을 통해 청소년과 미혼여성들에게 판매확대를 꾀하던 외산담배 문제, 위강맘은 대체방법이 없어 더 고통 받을 수밖에 없던 우유회사들의 상호비방 고름우유광고 문제, 세계최고의 무분별한 제왕절개 문제, 모유수유를 방해하는 병원과 사회시스템문제 등 중앙단위의 이슈와 각 지역별 이슈를 찾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일반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들의 고민을 들여다보니 청소년상담의 대다수가 성문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은 주로 친구문제 학교성적문제 부모와의 갈등문제가 중심이고 성문제는 생물학적 답이 고작이었다. 아이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음습한 성을 배우고 있었다. 당시 성교육에 대한 건의가 빗발쳤지만 완고한 학교문은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 분야 전문가인 구성에 부회장을 소장으로 한 청소년 성교육센터와 성상담소를 개소하여 전문 성상담원교육과 성교육강사 훈련을 시작했다. 관련학과를 졸업한 주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 이 훈련들은 자기자녀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사회활동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어 인기폭발이었다. 점점 자신들이 현장에서 갖춰야 할 기본과목으로 생각하고 사무직과 생산직 노조의 여성간부, 유아원과 초중고교 교사, 교회 등 종교단체 청소년지도자, 여성단체 간부 등이 참여하였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성교육훈련의 시작은 획기적이었다. 밀려드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사이버교육을 개설하고 전국 교사들에게 성교육 강사훈련을 시켰다.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성교육 강사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던 구성에 소장의 강의를 다수가 들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일반 국민, 부모들, 우리사회가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였다. TV방송을 통해야 했다. 우리들의 끈질긴 설득에 직접 현장강의를 녹화해서 본 MBC 관계자들은 성교육을 TV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전파를 탄 구성애의 성교육은 구성애 신드롬을 만들면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 완고하던 학교도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론교육과 상담실습, 사례연구, 강의실기 훈련으로 무장된 강사들은 학교와 직장 청소년시설 등으로 바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불려 다녔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위해 부모교육, 학생교육, 유아교육(인형극 개발), 장애인교육을 특화시키고 모든 강사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 보완 격려하고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탁틴내일>이 걸어온 길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개명

활동은 급속히 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성폭력과 소위 원조교제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속속 드러나고 상담과 성교육으로 깨끗이 씻어놓은 아이들은 사회가 퇴폐와 향락문화의 흙탕물에 다시 넣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그대로 둔 채 ‘내 아이만...’은 의미가 없었다. 당연히 유해환경에 접령당한 성장환경개선에 나서야 했다. 뻔뻔스러운 영계문화, 성폭력을 조장하는 퇴폐음란 폭력문화, 인터넷폐해 등을 다루면서 단체 명칭은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약칭, 내일여성센터)로 바뀌었다.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활동의 주체는 여성이지만 활동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 수호에 있음을 이름에 담은 것이다.

아동성폭력과 성착취뿐 아니라 불량한 학교급식문제, 학교폭력문제, 폭력적 게임문제, 게임중독문제, 성인 가해자만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문제,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문제 등 굵아 터질 때까지 외면하는 우리사회의 한심함이 가장 응축된 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였다. 더 큰 이해집단들의 목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린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를 사회에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어갔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 아이들의 성을 사거나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공개를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정에 앞장서고, 위기청소년 긴급구호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시청각 성교육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었다. 또한 성교육이 취약한 농어촌아이들을 위해 이동성문화센터인 성교육버스 ‘탁틴스쿨 와~’를 만들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우린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여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켰다.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고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러운 희생자 가족이 고개 숙이고 사는 사회였다. 아이들이 죽어야 신문 한 귀퉁이에 보도되거나 말 거나였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들떠 있을 때 학교폭력 때문에 동급생을 죽이고, 또 초죽음이 된 어린아이들의 사례를 접하고 이를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며 각계에 호소했다. 함께 모이자! 이것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의 출발이었다. 내일여성센터는 상임대표를 맡아 이미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나서서 운영하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전문성과 각계각층의 호응을 기반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법 제정에도 힘을 쏟았다.

<탁틴내일>이 걸어온 길

법제정에는 아청법과 마찬가지로 반대자의 목소리도 컸다. 호소와 투쟁의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법이 원하는 대로 안된다고 폐기시킬 것인가, 미흡하더라도 제정하는 것이 옳은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우리 후자를 선택했다. 부족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을 느끼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작은 일에 싸우고 갈등하는 문화를 바꾸자고 10월24일을 애플데일로 제정했다. 학교에서는 사과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행사를 하고 지금도 계속하는 학교들이 있다.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사)탁틴내일

아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어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스스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했다. 잘못된 성문화도 어른들의 문제가 고스란히 전수되어 가해 청소년이 속출하고, 학교폭력도 또래끼리 그들만의 세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교육과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주체로 세우는 활동을 확대하였다. 또래 상담, 청소년기자단, 세계시민학교, 봉사하며 배우며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청소년축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유해한 환경을 추방하는 캠페인,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토론회, 국회 청원활동을 청소년 스스로 나섰고, 성폭력을 근절하고 위기상황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긴급 전화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였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도 주인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간결하게 담고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이름에 대해 고민하면서 길고 긴 명칭이 2008년 5월 총회에서 ‘(사)탁틴내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이라는 슬로건은 활동주체를 청소년을 위한 여성들의 활동이 아닌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활동의 대상이 아닌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탁틴’은 ‘탁 트인’의 줄임 말로 청소년들이 열어갈 내일은 ‘탁 트인 내일’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제1장 새로운 시민운동의 장을 열다

1. ‘고름우유’광고 소송, 소비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승소

고름우유 충격 받은 소비자 외면한 채 상대회사 비난 광고전

1995년 10월 22일 MBC 뉴스에서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고름 섞인 우유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온 뒤 전국은 고름우유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논란에 불을 부은 것은 이 같은 보도에 기민하게 대응한 파스퇴르우유업이 ‘파스퇴르에서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신문광고를 냄으로서 타사의 우유에는 고름우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논란으로 변졌기 때문이다. 11월 1일 유가공협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고름우유 광고를 내 파장을 크게 불러온 파스퇴르우유업을 상대로 총공세를 퍼붓는 맞대응 광고에 나섰다. ‘파스퇴르 우유 역시 체세포가 검출되어 고름우유다’라는 내용의 광고는 우유생산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을 더욱 키웠다.

파스퇴르우유업은 다시 반박광고를 게재하면서 파스퇴르와 유가공협회 간의 광고전은 정작 소비자들의 충격은 외면한 채 감정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광고카피에는 당시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까지 거론되는 등 견잡을 수 없는 비방, 비난 수준의 광고전과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었다.

당시 ‘고름우유’공방으로 우유에 대한 불안과 혐오감 때문에 배달된 우유를 버리거나 배달 중지시키는 등 우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소비자들은 우유를 마실 때마다 세균과 싸우다 죽은 백혈구 등으로 만들어진 누런색의 고름을 연상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이다.

특히 우유를 늘 상 먹는 임산부와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고름우유’ 논란결과 우유가공제품의 판매량이 2주 만에 15.7%까지 급감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워킹맘들은 고름우유로 만든 분유를 먹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회원 317명, 전체 우유회사 상대로 집단소송

95년 11월 17일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회원 317명이 고름우유 광고전으로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 파스퇴르우유(주)과 한국유가공협회를 상대로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해 집단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고름우유 공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들은 공소장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우고 개선의지를 보여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 피고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유가 고름우유라는 인상을 주어 일반소비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안감만 주었다.” 피고들의 이러한 광

고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의 가공,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몰지각한 행위”라며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317명의 시민 소송단은 각자 소송이유를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대부분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95년 10월말 고름우유 논쟁이 있던 때, 임신8개월의 임산부였다. 당시 본인은 임신말기라 칼슘이 많이 필요해 하루에 1,000ml정도의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유회사에서 서로 광고지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유에 고름이 섞였고, 낮은 등급의 원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공격해 몹시 당혹스러웠다. 우유를 먹어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여졌다.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또 지금까지 마신 우유는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잠이 오지 않았다. 어쨌든 고름우유의 파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저와 같은 소비자일 것이다.”(서울 이현숙)

“4살 2살 된 남자아이를 둔 부산 직장여성으로 평소 풍부한 간식거리를 마련하지 못해 우유를 많이 먹이던 상태에서 그동안 먹인 우유의 해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가 기침만 해도 겁이 나고 우유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해 봐야 할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다.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그만 먹겠다는 설명에도 괜찮다며 억지로 넣는 우유 때문에 나중에는 배달아주머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그 아줌마는 생계가 막막한 상태로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어떤 질병으로 나타날지 불안한 마음에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부산 이진희)

기업광고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 최초로 인정

2년여간의 법정공방을 치른 97년 8월 1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최영희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대표와 시민 317명에게 피고들(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은 “연대해 원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9백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난 95년 10월 24일부터 10여일 동안 서로 ‘상대방 우유가 고름우유’라는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경쟁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기업광고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유 품질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을 준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히는 한편 “기업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면 마땅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우유 소비자의 수가 너무 많아 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기업의 도산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어 피해액을 3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던 6명의 유가공업체 대표들도 이날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고름우유 논쟁으로 인한 우유소비 감소와 축산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됐다.

고름우유 광고 법정소송과 승리는 광고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이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기업의 무책임한 광고에 대한 경종은 물론이고 고름우유 논란을 초래한 식품위생법의 미비점도 부각되었다.

농림수산부는 원유의 체세포 함유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우유제품의 등급제를 실시하였다. 기존 원유의 일반세균 기준을 100만 마리 초과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했던 것을 50만마리 초과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우유 1등급은 체세포 당 20만개 미만, 2등급은 20만~50만개 미만, 3등급은 50만개 초과로 정하고 1등급은 원유 가격에 kg당 30원을 더해주는 대신 3등급의 경우는 kg당 30원을 빼는 '가격차등제'를 추진하였다.

2. 한줄로서기 - 공정한 사회로 가는 문화운동

내일여성센터, 한줄로서기 운동 출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불일을 본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현실은 달랐다. 먼저 온 나는 기차표를 못 사고 나보다 늦게 온 다른 줄에 선 사람은 표를 사서 역에 대기 중인 기차를 탄다. 수업 후 10분 쉬는 시간에 한꺼번에 화장실에 몰려든 아이들도 줄 잘못서면 다음수업에 지각이다. 이럴 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재수타령을 한다.

창구가 하나면 당연히 온 순서대로 하나의 줄로 서면 문화시민이다. 그러나 창구가 여러 개면 어느 줄에 설까 눈치보며 줄을 서고 빠른 줄로 옮기면 먼저 섰던 줄이 더 빨라진다. 이 때문에 생기는 편법과 요행, 눈치 보기, 재수타령이 단지 줄서기뿐일까? 우리 사회의 병폐 중 하나인 자신의 능력이 나 노력보다 줄을 잘 서야, 연줄을 잘 잡아야 성공한다는 오도된 가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무질서는 규칙을 알고 있으나 지키지 않아 문제였다. 그런데 몰라서 못 지키는 무질서가 있었다. 한국공항을 나가 소위 선진국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밟을 때 줄서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된다. 창구는 여러 개지만 줄은 온 순서대로 한줄로 서서 빈 창구가 생기면 순서대로 가서 일을 처리한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공항화장실, 매표소, 은행창구, 대형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단기 해외체류를 통해 이미 합리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귀국하면 한줄로서기를 혼

자서는 실천하기 어려웠다.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 줄서기의 취지를 알리고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고 안내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깨닫게 해야 했다. 우리는 이것의 정착이 단순히 선진문화질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회주의, 눈치 보기, 요행수를 바라

는 풍토를 땀과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공평한 사회 합리적 사회로 바꾸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양한 홍보방법과 현장교육과 안내 등 체계적 활동기획을 확정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제안서를 들고 부지런히 뛰면서, 우선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이 언론기고와 당시 활발하게 진행하던 외부 교육 등 활동현장에서 한줄로서기의 전도사가 되었다. 또한 전국 지부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차역, 공항, 고속터미널, 대학교, 놀이공원, 백화점 그리고 축제나 콘서트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줄로서기 홍보 엽서

연대활동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과 결합

1996년부터 심재덕 수원시장이 전개한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은 1997년 수원 광교산 입구에 건축한 반딧불이 화장실을 계기로 전국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운동은 아름다운 화장실 건축, 제대로 된 관리, 사용자의 문화의식 3요소의 결합으로 가능하기에 우리는 심시장과 협조하여 이 운동과 결합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한줄로서기 캠페인을 확대하고 신축화장실 설계시 화장실 칸마다 줄을 서게 넓은 공간을 둔 설계가 아니라 그 공간을 줄이고 입구 쪽을 넓혀 한줄서기의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건의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와 공동 캠페인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는 1997년 5월31일, 월드컵개최 D-5년을 앞두고 공동체적 시민의식함양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선진 문화 질서를 통한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6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가입한 단체다. 우리가 제안한 한줄로서기운동이 확실하게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단체는 아직 조직 초기의 불안정, 실천력부족으로 긴 설득 끝에 1998년 8월에서야 공동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일여성센터는 활동기획과 회원들이 실천을 담당하

고 월드컴문화시민협은 유도 물품과 홍보물 제작을 담당했다. 호응이 좋아 다음해에는 월드컴개최 전국 10개 도시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으로 한 줄로 서기 동참

1999년에 내일여성센터는 내일신문 후원과 담배인삼공사의 협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대형경기장 콘서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활발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연인원 5천여명의 청소년,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422회 캠페인, 150여개 초중고교 초청으로 출장교육실시, 탤런트 박철이 출연한 홍보 비디오테이프 2만 개를 제작해 전국의 학교와 기관에 배포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이 운동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정하고 2000년에도 자체적으로 전국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캠페인을 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결합해 전국시도로 확산

1999년 봄부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한줄로서기가 갖고 있는 공정성, 합리성, 정직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해 8월, 한국통신 교육부 문광부 등 8개 기관과 내일여성센터가 참여하는 한줄로서기 연석회의가 제2건국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전국 13개 장소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시범 실시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적 참여와 호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기로 했다.



5월 3일에는 제2건국위, 전국 16개 시도 제2건국추진위원장과 12개 기관 및 내일여성센터, 월드컴문화시민협이 참여하는 한줄로서기 전국추진본부가 발족했다. 12개 기관은 전국적 기구인 철도청, 문화재청, 지하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단, 국민(주택)은행, 농협중앙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다. 우선 전국 4,787개소에 홍보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000년 7월에는 이 운동의 전국 확산을 위해 홍보주관을 선포하고 각 기관들은 연관 사업장, 즉 역 매표소, 박물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지자체들은 지역사회에 맞게 관광지나 역과 터미널,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기선 혹은 대기지점

을 알리는 발바닥 스티커 등의 계도물품을 부착 설치해 직접, 시범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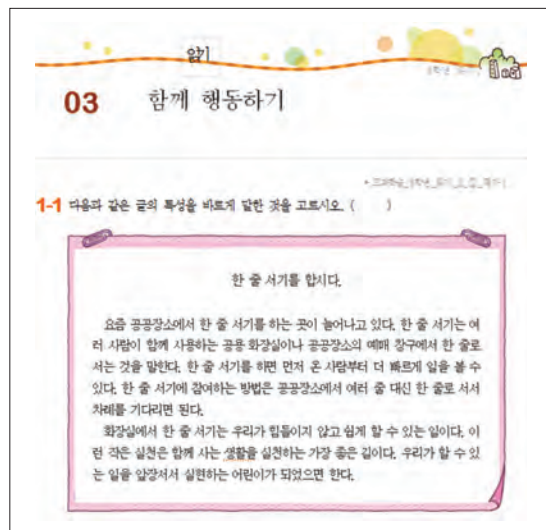
우린 반드시 해낸다! 올인~

운동의 전국적 확산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 제안단체로서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과 계도용품을 제작하고 전국을 돌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한줄로서기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한 의식개혁의 문화운동임을 이해하게했다.

우리는 학교 중심의 교육비디오인 박철씨의 비디오에 이어 2000년에도 텔런트 최재원씨를 주인공으로 성인대상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각 기관 및 군부대 예비군교육장에 배포하고 KBS공익광고, MBC라디오캠페인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만 각 지역에서 981회 캠페인, 유아부터 초·중·등교육 및 공무원까지 418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줄로서기운동 후 가장 활동적인 것은 청소년자원봉사단이다. 예를 들면 전주내일여성센터는 기전여고와 자원봉사활동결연을 맺어 매주토요일 30명씩 전주역과 시내 공중전화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면서 스스로도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전주 국제영화제 기간인 5월1일에서 7일까지 1주일동안 한줄로서기 봉사자는 5백여 명이였다.

기관들과의 연대활동의 특징인 회의실을 떠난 후의 실천부족을 우리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으로 메꾸면서 포기의 유혹과 손잡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 한줄로서기는 공공질서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2002년 수원역 민자역사 건립은 한줄로서기에 적합한 세심한 설계를 통해 건축구조에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작게는 합리적 질서를 정착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의식개혁운동이었고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변화를 확인해보면 보람으로 뿌듯한 활동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린 한 줄로 서기

⊗ 한줄로서기 추진과정

- * 1995년 5월, 해외 출장 중에 저지른 실수를 계기로 한줄로서기운동 제안하고, 우선 재정이 안드는 우리단체간부나 회원들이 언론기고 및 기업이나 노동조합, 학교, 여성 교육등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강연과 교육시 반드시 한줄로서기 필요성과 취지 설명
- * 1996년 총회에서 사업시작 확정. 구체적 실천기획과 후원자 물색.
- * 1996년 봄부터 연세대학교 공중전화부스 두 군데서 시범실시(문화인류학 교양과목에서 '다시 생각하는 줄서기' 실습)
- * 은행과 대형병원 수납 및 예약창구 번호표 발급 기계도입시작
- * 한줄로서기가 꼭 필요한 공항, 서울역, 고궁 등 공공기관장을 방문해 취지 설명 후 캠페인장소 제공요청
- * 한국의 화장실문화를 바꿔놓고 돌아가신 고 심재덕(수원시장과 국회의원역임)님이 주도한 아름다운화장실문화운동과 결합 공동캠페인
- *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월드컵개최 10개 도시에서 공동캠페인
- * 전국시도확산 위해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본부발족
- * 교재나 홍보물을 유아용 인형극부터 아동대상 홍보비디오, 성인대상 홍보비디오를 별도 제작해 보급
- * 포스터, 스티커, 한줄로서기 유도봉, 캠페인 활동가 조끼 등 제작
- * 전국사업장인 내일신문과 이 운동을 사회공헌활동과제로 선택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전국 역과 터미널 경기장에서 우리회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공동캠페인
- * 전국시도의 한줄로서기 캠페인 자원활동가 사전교육
- * 각종 강연과 교육에서 3분 홍보비디오상영
- * 주요시설, 대형 콘서트, 축구장 등에서 회원들의 집중캠페인 지속
- * 학교에서 교육 및 생활지도
- * 다중이용 공공건물, 공공화장실 신축시 캠페인취지 살리는 설계 건의
- * 홍보물에 무료 출연해준 연예인들 : 박철, 이희재, 이홍렬, 최재원 등
- * 4강 진출의 신화 월드컵대회기간 캠페인을 정점으로 그해 말까지 전국 각지의 역이나 광장에서 한줄로서기 사진전을 끝으로 활동 마무리

3. 터키탕 몰아내기 운동

음란한 터키탕서 튀기는 흙탕물, 청소년들이 마신다

1996년 7월초 교회여성연합회로부터 내일신문에 연락이 왔다. 내용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관광호텔에 이성입욕자를 고용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을 근거로 이성 마사지사들이 고용되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터키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일신문여성문화센터는 즉각 터키탕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부의 방조하에 심각한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96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텔을 중심으로 약 113개 업소가 성행하고 있었다. 93년 8월 이후 퇴폐업소규제에 묶여 있던 터키탕의 신규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급속히 늘어난 탓이다. 우리는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에 “터키에 있는 목욕탕은 한국 터키탕처럼 이성 입욕보조자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이성 입욕자와 성매매를 하는지?” 문의 하였다. 우리의 질문에 외대 교수는 펄쩍 뛰면서 “아니다. 터키탕은 그냥 순수 사우나”라고 답했다. 외대 교수의 답변에 확신을 가진 우리 단체는 그 다음 행동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노한 터키 대사관의 항의로 터키탕이 증기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터키 대사관에 한국의 터키탕 영업방식과 터키라는 국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터키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연상시키는지에 대해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즉각 터키 대사관에 정식으로 한국의 터키탕과 터키의 입욕문화에 대해 질의하였다. 터키 대사관은 매우 놀랐으며,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은 여성대사인 테리야 닝겔테페 터키대사는 우리나라 정부에 이를 항의하고 ‘터키탕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투고까지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터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터키탕 명칭 사용변경 항의 서한을 보냈다. 우리는 7월 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회원 50여명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터키탕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한달 뒤인 8월 7일 한국 정부는 ‘관광호텔에 마사지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정부청사 앞에서의 시위가 계속되고 항의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여성 입욕보조자의 복장을 규제한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우리는 설치제도에 대한 문제뿐



터키탕 반대시위(1996. 7. 19)

만 아니라 터키탕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아무 리 입욕보조원 여성이 배와 가슴을 가리는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더라도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남자를 목욕시키는 것은 명백한 음란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조인들도 공중위생법 제 12조 2항에 의한 보사부령에는 목욕장 내에서 음란행위와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이성 입욕보조자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은 모법과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적으로 터키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공중위생법’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이성 입욕보조자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뿐이었다. 터키탕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만 두고 있었다. 우리는 공중위생법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목욕장업에 이성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뚝뚝 뭉친 터키탕협회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다.

다음 해인 97년 2월 11일 공중위생법상 특수목욕장업의 하나로 인정돼 온 터키탕업이 본래의 건전한 터키식 목욕장과 다르게 운영돼 왔고 이에 대한 터키정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그 명칭을 증기탕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로소 ‘터키탕’이 ‘증기탕’으로 명칭은 바뀌게 되었다.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이성 입욕부조자 금지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이 수많은 항의시위와 터키대사관과의 교감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98년 8월 20일부터 이성 입욕부조자를 둘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내일여성센터의 전략이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 <(주)행남자기 성희롱사건 고소건>

1996년 행남자기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 관련자 파면요구 및 성희롱 방지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부사장과 상무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사내 성희롱 방지 지침서를 발간했다.

☞ <백화점 여자화장실 비밀카메라 설치 사건>

1996년 서울 신촌에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 여자화장실 비밀카메라설치에 센터회원 20여명이 즉각 항의시위를 하여 그레이스 측에서 각 일간지에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4. 학교급식 개선운동

부실한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개최, 공공구매와 식자재 검수 지원기관 설치 주장

95년,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 실시에 편차가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실시를 원하고 있어 내 일여성센터 지부들은 지역별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줄속으로 시행되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국 학생·교사·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한 학교급식이 중·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당시 학교급식은 묵은 쌀과 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재료, 인스턴트식품 등이 아이들의 식탁을 채우고, 위생상태도 허술하였다. 또 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위탁 급식 대부분은 이윤을 남기고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뒷거래 등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음식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낮은 급식 단가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저가의 쌀이나 신·구곡 혼합미는 밥맛을 현저히 떨어뜨려 아이들이 쌀밥을 거부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01년 학교급식 확대로 식중독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해 9월 내일여성센터는 학교급식토론회를 개최하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 단위로 식재료 공동구매와 검수절차를 거쳐 학교로 배송하는 지원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구매제를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면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급식단가도 낮아지니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 수입농산물로 위기에 처한 농촌도 살릴 수 있으며 아이들

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서 광역단체장과 몇몇 시장 및 구청장에게 제안했으나 어렵다는 호소만 들었다.

그리고 1년 후에 학교급식지원네트워크가 생겼다.

한편 내일여성센터는 서울지역에서 2003년 10월부터 서울시 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2003년 10월 1일 결성, 총 44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목표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과 서울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급식운동의 방향은 직영급식, 학부모 참여, 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 등이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동구매제를 통한 안전한 우리농산물 급식 다시 제안

2005년 학기 초부터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학교급식의 현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조리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이 불량한 학교 급식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자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계등에서는 품질 좋은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각종 안전검사를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내일여성센터와 내일신문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전환하자는 운동을 추진하였다.

2005년 5월 내일여성센터와 부산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한 ‘우리농산물 급식 시스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내일여성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설치되어야 하고, 지원센터는 물류기능, 식자재 검사 및 검수기능, 식단 연구 및 개발 등의 역할을 해야 함을 제안 하였고, 참여자들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당시 내일여성센터는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에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경기도교육청과 내일여성센터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부산 교육청 김순례 학교급식담당자는 “80여 학교가 공동구매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수한 식재료 구입비용 절감,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공동구매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부산교육청 사례를 발표 하였다.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청소년들이 나섰다.

내일여성센터는 학교급식운동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사용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서울, 안산, 수원, 군포, 전주, 대전, 부산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안산지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바꾸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LOVE 米! HELP 米! 몸에 나쁜 패스트푸드 몸에 좋은 슬로우푸드, 米 안하다! 쌀알한다! 학교급식은 우리농산물로!’ 등 톡톡 튀는 구호를 직접 제작하여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금도 청소년들의 먹거리 안전지킴이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환경지킴이단으로 확대되어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
내일신문수원여성문화센터(1995. 9. 23)



학교급식문화 바꾸기 토론회 주최(2001. 9. 12)

5. 학교폭력 예방운동

학교폭력방지 132개 단체,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 결성

1990년대 청소년폭력이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각해지고 학교폭력발생률이 중고교생 88% 국교

생 68%에 이르렀고 그 유형도 다양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학교폭력피해자 중 신고율은 8.4%에 불과해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 청소년 폭력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을 뿐 학교폭력의 잠재적 실상은 심각한 지경이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년 참조)

2001년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는 아동·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학교폭력에 방화활동을 양성하였다. 그들과 함께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인식확산을 위해 교육과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될 때 한 청소년이 친구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했던 것을 자책하여 교실에서 가해 청소년을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같은 반의 한 아이를 지속적(1년 동안) 폭력을 가하는 것이 방송에 보도되었다. “누가 이런 작은 악미를 만들고 있는가?” 내일여성센터는 학교폭력예방운동에 단체들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5월 22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단체, 언론사, 대학 등 132개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가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는 그간 산발적으로 전개해 온 청소년단체 및 지도층 인사들의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예방활동을 벌여갈 것이라 다짐했다. 5월 24일부터는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6일간)으로 제정하고 서명운동과 각종 퍼포먼스를 벌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운동

국회와 정부는 1997년부터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 국회에 2001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표류했다. 우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활동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법제정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하였다.

청소년 시민단체들은 서명운동과 당위성을 설득하여 2003년 6월 현승일 의원이 우리 법안을 상정하였다. 또한 2003년 9월 국회 앞 1인 시위, 법사위 방청활동 등 대국회 설득작업을 함으로써 드디어 2003년 12월 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는 △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 학교폭력상담실 설치와 전문교사 및 책임교사 등 배치 등이

포함되었다.

2004년 2월 17일 학교폭력관련법제정 축하 및 시행령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행사는 학교폭력관련법을 널리 홍보하고 그동안 법제정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법제정보다 중요한 것이 시행령이었다. 4월 20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교육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였다. 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 및 법률개정 등 법률이 학교폭력예방활동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가들이 각자 지역의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애플데이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날!”

2002년 10월 17일 온라인 애플데이를 시작으로 24일 애플데이(Apple Day)를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폭력문화가 변하려면 사과하고 용서하는 문화가 필요했다. 애플데이 제정은 사과를 주고받으며 사과와 화해의 뜻을 전달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날만큼은 미움을 씻어내고 즐거운 학교, 사랑의 가정, 아름다운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해보자는 바람에서였다.

영어의 애플은 사과(沙果)로 사과(謝過)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둘(2)이 사(4)과하는 의미에서 애플데이를 24일로 지정했다. 사과를 선물하며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줬으면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03년 10월 24일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날 “애플데이” 첫돌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점으로 매년 개최하여 각 지방과 지자체의 학교와 단체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애플천사단을 조직하여 학교나 단체들이 애플데이 캠페인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에도 매년 행사를 통해 청소년 폭력예방 및 사회적 화해분위기조성 “함께 웃는 학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사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대형 매장에서 10월 24일을 앞두고 ‘사과의 날’을 알리는 방송을 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과 공동체놀이,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드는 ‘학교 벽화 그리기’

협의회 소속단체들은 단체특성에 맞춰 인성교육, 캠페인, 상담과 법적지원 등 다양하게 활동했다.

폭력추방 및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에는 폭력감수성과 인지가 교육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내일여성센터는 학교폭력예방인형극활동가 양성, 인형극 “똥이는 내 친구”를 만들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순회 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리얼짱 청소년 기네스 오리엔티어링 대회, 공동체 놀이와 협동놀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왕따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예방지도자양성과정, 단체전문가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2002년 “학교벽화그리기” 사업은 패쇄적이고 늘 정체된 느낌의 학교 외벽에 산뜻한 벽화를 그려서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고, 함께 작업을 함으로써 협동과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성공한 경험이 되었다.

학교벽화그리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지역사회, 학교와 단체가 함께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되었다.



학교벽화그리기(2002년)

제2장 청소년 성인권과 성보호운동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향락·퇴폐문화로부터 청소년 지키기 운동

1996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유해환경 퇴치운동’

1996년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추방활동이 절실히 필요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까지 유흥시설이 즐비한 게 현실이었다.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기존 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해제하거나 ‘인근에 유사업소 밀집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미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폐쇄조치를 받았으나 재산권을 이유로 ‘기존 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가 해제되었다.

따라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부모, 청소년이 직접 나서는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1996년 8월 내일신문여성문화센터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족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터키탕 철폐운동부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인 상설신고 전화 ‘내일을 위한 전화’를 운영하였다. 또한 유해환경 추방캠페인 활동, 학교 주변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실태조사, 학부모 및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법적 제도적 장치 청원활동, 유해환경 관련기관에 시정 촉구 운동 등을 펼쳤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대상으로는 인쇄물(음란만화, 도서, 잡지, 신문, 광고, 선정적 포스터 등),

영상물(TV, 비디오, 컴퓨터 게임, 광고 등)과 유해업소(노래방, 성인오락실, 비디오방, 유흥업소, 도서, 비디오 대여점 등) 등이 있었다.

1996년 유해환경감시단 고발신고 전화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울산지역 청구아파트 홍보물에 음란광고 전단지 무작위 살포되어 내일신문여성문화센터가 고발조치 하였는데 청구아파트 측의 사과로 마무리 되었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지하철 가판에서 판매되는 ‘사건 25시’의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으며, 종로 세운상가 3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1996.8.15.)

층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성인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발견되어 종로구청, 중구청, 청와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활동 등을 하였다.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과 다양한 감시단 활동

1999년도에는 아우성 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아우성 맨'을 구성하여 동아리 모임을 갖고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도 병행하고, 학교별로 유해환경지도 만들기 도 하였다. 방학 중 서울, 부산에서 1,000여명 아우성 자원봉사대회 개최, 아우성 훈련을 마친 교사 (연 200여명 수료)와 연계하여 교사모임을 구성하였다. 또 아버지 감시단, 어머니 PC감시단을 조직하였다. 어머니 PC 감시단은 정보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PC교육, 21세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유해 정보들을 찾아내어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어머니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지역 주변에 산재한 각종 유해환경 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방송인 손숙 씨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머니의 역할(어머니감시단의 역할)'이란 강연회까지 마련하여 200여명의 어머니가 참여했고, PC 감시단 교육 55명, 감시단 워크숍 180명, 감시단 대회 700명이 참여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어머니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몰아 서울시에 청원을 통해 상시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광고를 전담하는 심의기구 설치 등 유해성 광고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후 꾸준히 모든 지부에서도 지역사회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동시에 2014년도 영상물 모니터링 사업으로 영화광고, 포털 영화예고편 광고, 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스포츠신문 바로잡기 운동본부〉를 통해 선정성 향의 연대활동

2003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중앙언론사가 발행한다는 막강한 배경과 사후심의 허점을 등에 업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내일여성센터 등 16개 청소년, 여성, 미디어단체들은 청소년유해 스포츠신문의 과징금 징수를 규정한 개정법안의 통과와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신문 건전화에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스포츠신문바로잡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스포츠신문바로잡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5개 일간 스포츠신문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화를 위한 캠페인, 스포츠신문 규제조항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입법운동을 전개하였다.

10월 18일 청소년 보호주간에 맞추어 명동에서 10여개 단체의 〈스포츠신문 바로잡기 캠페인〉활동 이후 음란성과 선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굿데이’ 사육까지 행진, 향의 메시지와 함께 ‘타의추종 불허상’을 전달하였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담긴 엽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 국회의원에게 메일보내기, 국회정무위원들에게 개정안 처리를 위한 압력방문(기윤실, YMCA, YWCA, 내일여성센터) 등 활동 결과 12월 29일 스포츠신문의 과징금 징수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의 연대모임이 큰 결실을 맺게 되어 6개월간의 연대회의의 유종의 미를 맞게 되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04.4.30] [법률 제7161호, 2004.1.29 일부개정]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일간신문 중 특수일간신문에 한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주로 다루는 일반일간신문 외의 일반일간신문에 대하여도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6호).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감시 클린인터넷 운동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인터넷과 연관된 성폭력과 인터넷상의 유해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시급해져 2000년 5월 23일에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미성년 성폭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클린인터넷’ 캠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가 양성을 진행하였다. 같은 해 12월 〈온라인 세상 속의 우리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는 주제로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주최하여 부모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공유하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2002년 7월 20일에는 사이버맘 활동을 신청한 1백여명이 모여 사이버맘 발대식을 열고 그 이후 청소년이 방문하는 1천 여개 사이트 평가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03년에는 중학생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불건전한 정보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유해·유익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 활동을 통해 만든 인터넷 모니터링 신문을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클린인터넷’ 활동으로 이어졌다. 제작된 ‘클린인터넷’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000여 곳의 중학교에 발송되었다.

그 후 청소년미디어 동아리 운영 등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비판 능력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콘텐츠 및 인터넷이 더욱 발달함으로써 음란물에 접촉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2010년 5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 GSGT(Good Students & Good Teachers)’와 함께 깨끗한 인터넷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만들기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진정서를 낭독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참여자 모두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슬로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과 더불어 아버지들로 구성된 ‘아빠 만세(아빠들이 만드는 탁틴내일 세상)’ 발대식이 진행되어, 아버지들도 함께 피켓을 들고 깨끗한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깨끗한 인터넷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2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11개의 시민단체들과 사이버지킴이연합회를 구성하여 카페,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모바일, 웹하드 등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하고 성인인증 없이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성매매 유도 등 온라인상의 청소년 불법정보,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국민운동이자 소비자운동,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 활동

그동안 GSGT와 연대하여 청원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제도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인터넷 뉴스 배너에 선정적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4년 7월 탁틴내일은 GSGT, (사)어린이안전학교, 아이건강국민연대, (사)선플운동본부,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강남녹색어머니회 등 7개의 단체와 함께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는 청소년과 부모, 시민, 교사가 함께 하는 인터넷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거리캠페인, 모니터링, 청소년보호법개정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등 타 법률에 대한 개정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셋다운제 완화 반대운동〉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하 셋다운제) 제도는 2011년 5월 19일 신설되었다.

셋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인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중독성 있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게임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업체의 로비와 비판으로 제도시행 전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2011년 시행후 바로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문화연대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3년 전병헌의원등이 완화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탁틴내일은 놀이미디어연구소, 아이건강국민연대 등과 함께 의원실 항의방문 및 국회 앞 반대 캠페인을 열었고 전병헌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시까지 법안 상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7:2로 셋다운제의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셋다운제 완화가 발표되었다. 이에 항의 캠페인, 여성가족부 면담, 완화에 반대하는 76개의 여성·청소년단체 및 기관들의 서명을 받아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동시에 남윤인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셋다운제에 대한 85%의 현 제도유지 의견과 스마트폰까지 확대하는 84.1%의 동의 의견을 포함하여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자료를 발표하였다.

2.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지키자

청소년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1997년 1월 3일에 '부설 성상담소'를 정식 개소하였다. 성교육센터를 통해 수많은 성교육을 하면서도 일회성 성교육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성문제를 상담해오는 청소년을 위해 성상담소를 설립하기로 한 결과였다. 1983년 여성의 전화 설립으로 반여성폭력운동으로 시작되어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반성폭력운동은 여성운동의 핵심적 과제였고 사회적 관심도 폭증했다.

성상담소는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전화, 또는 면접상담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빠른 치유를 돕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집단상담을 대중적으로 실시하고 전 사회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성폭력 범

죄 및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예방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98년 일년간의 성상담은 아우성(‘아름다운 우리의 성’의 약칭)의 원년이라 선포할 만큼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한해였다. 아우성상담소의 상담결과 분석은 향후 상담소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98년 총 상담건수 4,849건 중 청소년의 상담이 2,698건으로 상담의 절반이상이 5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미혼이 1,070건(22%), 기혼 422건(9%), 대리상담 659(14%)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상담의 대부분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상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의 상담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우리 상담소 주요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특화시켰고 아동·청소년성폭력 상담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성에 대한 고민, 궁금증을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다른 청소년 상담 단체에서 어려운 성상담의 경우 우리 상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개소 초기부터 청소년성상담의 전문기관으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청소년 성상담을 통해 본 자위행위 심포지엄(1997. 9. 26)



초창기 상담원 교육(1998)

청소년이 진짜 고민하는 ‘성’을 말하다

상담소는 지난 19년간 3회에 걸쳐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9년부터는 ‘아우성 상담소’, 2001년부터는 ‘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2012년부터는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상담소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 활동은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상담(1999년 최초의 온라인 성상담실 운영)등의 상담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개소한 첫해 상담건수는 1,642건이었다가 점점 상담건수가 증가해 최고점에 달했던 2003년에는 연간 19,594건에 이른다. 2000년대 이후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1997년-2014년) 상담 통계

(단위:건)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계
성폭력 상담	71	351	811	926	673	671	751	606	714	316	491	548	536	676	938	1,028	1,470	1,137	12,710
성상담	1,571	4,498	5,209	5,937	3,303	3,148	3,396	1,973	1,155	1,495	1,682	1,920	1,888	1,171	1,207	967	852	698	43,498
일반 상담								528	351	132	156	294	562	143	158	265	234	137	2,960
사이버 상담			1,431		20,484	14,191	15,447	11,378	4,457	1,340	814	628	349	160	327	181	113	71	69,940
총계	1,642	1,849	7,451	6,863	24,460	18,010	19,594	14,485	6,677	3,276	3,143	3,390	3,335	2,150	2,630	2,441	2,669	2,043	129,108

*성폭력상담, 성상담, 일반상담은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포함된 수 *사이버상담은 성폭력, 성상담, 일반상담 포함한 수

성·성폭력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인터넷상의 온라인상담, 정보검색 등이 활성화 되면서 상담건수가 줄었으나 개소 이후 2014년까지 18년간 상담건수는 총 129,108건에 달한다. 상담은 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1999년 10월 4일 제 1회 성폭력상담원교육 실시부터 시작해 2013년 제9기 상담원교육까지 활동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성·성폭력상담과 관련된 경험과 연구들을 유관단체 활동가 및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공유 하였다.

또한 우리 상담소는 1997년부터 매년 청소년 상담 관련 단체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 성과 관련 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고민, 성폭력 상담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읽고 전문가적인 분석과 대안,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해왔다.

1997년 9월에 개최되었던 첫번째 토론회는 ‘청소년 성상담을 통해 본 자위행위’를 청소년들의 성 상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제였다. 주제 자체에 반응과 관심이 컸다.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혔고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자위행위 자녀 지도법까지 제시해주었다. 이후 ‘청소년의 이상 성행위’, ‘10대의 임신 그리고 성’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002년 4월 23일에는 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청소년가해자 실태 및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물론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2003년 4월 29일 주최한 동성애자의 인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포함되어있던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토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사이버 또래상담원(약칭, '사또')을 아시나요?

청소년 의식조사의 단골질문은 고민이 있으면 누구와 상담 혹은 털어 놓느냐가 문제였다. 모든 조사에서 답은 단연 친구가 가장 높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2000년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성상담과 사이버 성교육전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더니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급증했다. 음란물과 포르노 등 잘못된 성 개념과 그릇된 정보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건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성가치관을 어른들의 가치관만이 아니라, 또래 집단인 사이버 친구들을 통해 전하고 배울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또 교육을 시작했다.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상담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일반인은 '일반사또', 중학생이상 청소년은 '땡기사또'로 나누었고, 또래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이 교육 받은 내용으로 쉽고 편안하게 상담해주는 역할이었다. 교육과정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성교육 관련 다양한 교육과정(시춘기의 심리·성적 발달, 남성과 여성의 성 생리와 상담실제, 성폭력 예방과 대처, 음란물 속의 성 등)을 포함한 on line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출석 점수와 과제제출, 상담 참여 등을 포함한 소정의 시험에서 80점 이상 합격자에게만 또래상담원으로서 홈페이지(www.tacteen.net) 공개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2000년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사이버또래상담원(사이버상의 멘토링 역할)은 2005년에 20기 수료자를 배출, 사이버 상에서 또래 친구들의 밝은 성문화 전달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사이버또래상담원은 2005년까지 총 518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활동하였다.

사이버또래상담원의 성과로는 고민을 나누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온라인 교육을 통한 지역적 한계의 극복, 청소년 및 젊은이들의 또래 상담 자원봉사조직 토대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육받은 소양으로 사이버상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도 또래 상담원 역할을 할 수밖



상담소 개소 5주년 심포지움(2002. 4. 23)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에 관한 토론회(2003. 4. 29.)

에 없었다. 그러나 사또 교육 수료 후 실제 사이버 상의 상담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한 관리가 필요하였으며 당기사또와 일반사또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업그레이드가 계속 필요했다.

한편 상담자원봉사로 사이버포래상담원 활동을 했던 대학생이 상근활동가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 및 성교육 지원활동 개시

2004년 11월 5일에는 ‘학교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주관하에 우리는 청소년성폭력상담메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 9일에는 탁틴내일연구소 발족기념으로 ‘청소년 성폭력가해행동 재발방지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했던 성폭력사건들에 대해 반성폭력운동 기관들과 연대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는데 2003년 신부에 의한 아동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2004년 밀양 청소년 집단성폭력사건 공동대응 활동 등이 대표적인 활동들이다. 2004년 밀양 청소년 집단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소에서 성명서를 내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2차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용산 어린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시민네트워크 결성 및 법개정 서명운동 등을 했고 다음해부터는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위와 같이 우리 상담소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키우며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성상담부터 연구, 조사, 캠페인, 연대활동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3. ‘신상공개’ 요구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운동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적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여성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선도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의 집행도 성매매 여성만을 단속, 처벌하고 직업보도시설에 수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인권과 관련 사회제도, 환경, 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1995년에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성매매를 인권침해로 규정, 불법화하고 전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회에서는 여성의 인신매매 근절 및 성매매와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특히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이에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섹스관광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인터넷의 성 상품화 금지, 여성 인신매매 금지 등 단호한 조치와 그 사회적 토양으로서의 성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매매의 형태는 다양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IMF로 온 나라가 어려웠던 1997년 일본으로부터 해피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등장하게 된다. 일본에서 중년남성과 여고생 사이에 유행한다는 이른바 「원조교제」가 우리나라에도 유행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주요과제별로 대책위를 만들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YMCA, 서울YWCA,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등의 단체들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998년 9월 22일 발족기념으로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1차로 '청소년을 사고파는 향락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이 기출상태로 추정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소들의 청소년 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함을 제기하는 등 소위 '영계문화' 추방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출발시켰다.

‘성문화대책위’ 소속단체들, 거리에서 살다

이어 1999년 3월 30일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는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10대 매매춘상대자 신상공개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지도자(법조계, 국회의원, 학계, 종교인, 시민단체, 전문직, 공무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를 찬성(남성 72%, 여성 84%)한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1996년 매간법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석방되는 경우 이웃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9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이 채택되어 있음을 소개했다.

성문화분과위원회 소속 시민단체들과 함께 명동성당 앞에서 거행된 ‘딸 아들 사고과는 향락문화 추방선포식’을 기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 티켓다방에서의 청소년 불법고용 근절, 아버지 감시단 발대식 등 지속적인 범국민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여세를 몰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PC통신 토론실에서도 찬반 의견이 뜨거웠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인권 운운하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대책위 소속단체들은 사회여론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참여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신상공개 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일여성센터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군포, 부천 등 전국 각 지역 지부들이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청소년성보호법(일명:신상공개법, 개망신법) 드디어 제정!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성 관련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상이 된 청소년은 보호·구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있었다.

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중처벌’이라는 법조계의 반대, 인권단체의 ‘가해자 인권보호’라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우리는 거리에서 국회안으로 들어와 법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꿈작도 안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인 이 과제를 모 TV방송사가 생방송으로 신상공개 찬반 토론회를 하면서 실시간 여론조사를 했다. 결과는 91%이상의 국민이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파장분위기가였다. 3개월후의 총선에 올인할 시간이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이 일어나던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 중 끝까지 반대하던 네분에게 대책위원들과 회원들이 네팀으로 나뉘어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답판을 지었다. 그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법은 바로 통과되었다.

다만 ‘신상을 공개 한다’는 조항은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과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 성폭력을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위한 시비가 있다며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해 통과되었고, 법사위에서는 이를 반대하던 의원 등이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동기, 전력, 죄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덧붙여졌다.

사실상 당초의 입법 취지에 비해 무력화된 상태로 통과되어 버린 점, 신상공개的方法和 내용 또한 우리가 주장한 것이 시행령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형식적인 것에 그쳐 성범죄 예방에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였던 것 등 여러 한계는 이후 계속된 개정작업에 의해 개선되어왔다.



신상공개 집담회(1999.3.30.)



청소년 성매수자 구속 촉구(2001.7.12.)

법 제정으로 끝이 아니다.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 문제' 해결해야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하는 반면,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불처벌주의 원칙을 수립하여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과 매수자 쌍방을 처벌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희생자이며 잘못된 남성문화의 피해자로 본 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 등에 입법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대가성'의 문제, '행위 개념'의 문제, '신상공개에 따른 가해자 인권' 문제 등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반면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이 마련됐지만 '여성폭력 근절', '청소년 인권'이라는 원칙하에 일관성 있게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영을 꾸려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를 풀어갈 운동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각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현행법의 개정 방향, 합정수사기법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앞으로 성보호법에서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 정의하여 성착취 피해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 사회인식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매 신고 운동에 나설 때다.

☞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당시 주요내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 폭행, 채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
 -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함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 반기별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계도문을 작성하여 게시, 배포하고 관보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등

4.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One-Stop 서비스 '1388',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정책의 구체적 실천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위기로 국가도 기업도 가정도 끝 모를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대기업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무참히 휘두르고 있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났다. 그 과정에서 가장들이 기업에서 해고되거나 실직되었고, 가정의 실직은 이혼으로 치닫거나 가정폭력의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해체위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정은 더 이상 따뜻한 곳(양육의 터전)이 아니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거리의 삶과 '썸터'를 오갔으며, 그 중 10대 소녀들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말에 '티켓다방'에 취업을 하거나 PC방에서 인터넷 성매매를 하면서 가출 이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2003년 9월 종로구 통의동에 설립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개소식(2003. 9. 24)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전문기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였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위탁 운영한 청소년 보호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위기청소년일시보호소 운영,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보호시설 실무자역량 강화, 아동 청소년성범죄 신상공개대상자 교육 등이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헬프콜 위기청소년전화 ‘1388’의 24시간 운영 및 우리나라 최초로 위기청소년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원스톱서비스는 가출 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부터 일시보호,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시설연계 등 청소년이 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담과 긴급구조, 거주시설 연계 후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뿐 아니라 지속적 심리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하고 주민등록갱신과 문신제거, 취업과 진학지도를 지원하여 원만한 사회적응을 준비케 해야 했다.

2004년 한해에만, 위의 통계를 제외하더라도 1388 긴급구조단은 가출 청소년 164회, 성매매 164회(수사지원 포함), 근로권 5회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을 펼쳤고 법률지원 64회(공감, Netlaw), 시설연계 110회(신림센터, 자립지지 등 보호시설), 귀가지원 36회 등의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상담간수(거리상담, 집단상담 제외)	2,634	4,060
긴급보호	232	294
교육지원(검정고시 등)	23	235
의료지원(산부인과 치과 등)	85	196 (43명, 정신의료서비스 포함)
자립지원(취업 교육지원)	64	69
아웃리치	2,700	2,636
시설방문 상담치료	160(실인원)	325(연인원)
성매매성추행 가해자교육	262	410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My Way프로젝트 778명, 인턴십 지원 24명, 진로지도 299명, 취업교육지원 64명을 비롯하여 재활지원프로그램인 주민등록갱신과 문신제거 22명, 사후관리 지지상담과 모임 등 91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거주시설 방문심리치료에 160명 등의 지원활동이 있었다.

2005년에는 청소년보호 시설 실무자들이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후 보호시설에 매뉴얼을 보급하여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게 했다.

위기청소년 핫라인 '1388', 언제 어디서든 전화만 해~ 우리가 달려갈게!



2003년 홍보대사 '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포스터 배포

그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들 중 가출이나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위기상황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쉼터’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하기까지는 청소년들이 쉼터에 대한 편견과 소문으로 인해 입소를 꺼리거나 쉼터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쉼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쉼터 생활보다 거리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One-Stop System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들이 1차적 위험에 노출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접근하여 2차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12, 119처럼 위기청소년전용 핫라인 1388을 24시간 365일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도움을 청하면 청소년이 있는 위치까지 직접 찾아가서 긴급구조를 하고, 긴급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따라 당일로 경찰조사를 동행하는 등의 case by case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민간네트워크 1388청소년지원단 확대구축

위기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안전망 구축이었고, 사회안전망을 긴급구조에서부터 자립까지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긴급구조 안전망의 문제는 긴급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좀

더 신속히 위기청소년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긴급구조 지원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시 곳곳에 있으면서도 청소년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찾아보니 PC방, 찜질방, 편의점, 노래방이었다. 당시만 해도 심야 10시 이용규제가 생기기 전이었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고, 심야시간 출입이 가능했기에 청소년 긴급구조단으로는 적격이었다. 또한 PC방과 찜질방,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자주 발생하여,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청소년들을 상업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업주들에게 보호의 시각을 갖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자고 함으로써,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단이 결성되었다. 긴급구조단에 가입한 업소들은 출입문 앞이나 PC 모니터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1388 홍보물을 부착해 놓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다. 서울시 약사회 협력으로 서울시내 약국 역시 긴급구조 지원단으로 활동하였으며, 위기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 상인회에서도 협조를 하면서 긴급구조안전망이 더욱 확대되었다.

1388청소년지원단 확대구축 실적

1388청소년지원단체	2004년 업소개수	2005년 업소개수	활동
서울시약사회	276개	502개	청소년보호 거리캠페인, 청소년보호 플랜카드 통한 캠페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야회	130개	241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119개	235개	PC방 업소에 모니터용 스티커 부착
신촌상인연합회	52개	84개	밝은 청소년지역(신촌)만들기 캠페인 실시
(주)환경콜	택시 500여대	택시 1,200여대	- 주야간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지원 - 택시외부에 청소년전화 1388 홍보광고물 부착(1,000대) - 택시내부에 청소년전화 1388명함
한국사우나불가미중앙회		194개	
계	1,077개	2,456개	

긴급구조지원단이 확대되면서 구조요청 후 현장에 실무자가 도착할 때까지 청소년들이 길거리가 아닌 업소에서 안전하게 실무자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었고, 이후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요청에 대응하고자 실무자가 현장으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무협약을 체결한 환경콜 택시가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기관까지 이송해 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길 위의 아이들아, '우리집'으로 와~

가출 청소년들의 긴급구조 요청은 주로 서울시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도움 요청은 부산, 대구, 대전, 전라도 광주, 광양, 거제, 진주, 통영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고 주로 서울과 먼 지역에서 도움이 요청되었다. 그에 따라 성매매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실무자는 서울보다 지역 도시에서의 활동이 더욱 왕성하였다. 티켓다방 긴급구조는 주로 주간에 이동하고 야간에 긴급구조 및 경찰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경찰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심야시간(새벽 2시~3시)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지역 티켓다방의 특성상 경찰조사가 끝나면 그 지역에서 장시간 머물 수가 없어서 심야시간에 다시 차로 최소 1시간 정도 이동하여 숙박을 해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긴급구조활동을 했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활동 외에도 가정으로 귀가 할 수 없는 청소년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일시보호소 '우리집'을 운영하였다.

2004년 국무조정실 우수사업 선정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를 목표로 상담, 구조에서부터 보호 치료 및 자활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고 선진국의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스템구축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전국에 산재한 청소년 보호 역량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민-관, 민-민간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대상을 성매수에 이어 성추행까지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도 더욱 전문화하여 대상자들의 참여와 의식변화를 높여 재범방지에 기여하였다. 활발한 활동결과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위험노출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사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 정착되어 2004년 국무조정실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청소년 상담 및 위기지원체계의 통합 및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소되어 위탁을 종료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부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청소년 위기지원 및 상담업무를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위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허브역할을 하게 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 속해있다.

5. 국제연대를 통한 아동 성착취 근절운동, ECPAT Korea 활동

1) 2004년 (사)탁틴내일, ECPAT International의 한국 지부로 가입하다

ECPAT은 상업적 아동성착취(CSEC)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서, 아동성매매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시민단체이다. 이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 문제이므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국제사회단체이다. 상업적 아동성착취에는 아동의 조혼, 아동 포르노그래피, 성적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관광 등의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엑팓 결성 움직임은 1985년에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3세계 가난한 나라였던 타이에서 13세 소녀가 성적 학대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하고, 매춘굴에서 20여명의 어린 미얀마 소녀들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지는가 하면, 선진 외국인이 설립한 고아원 어린이들이 성적으로 유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시아 교회여성협의회가 타이베이에서 ‘관광과 매매춘’을 주제로 회의를 연 뒤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86년 30여개 이상의 여성단체들이 ‘무지개연대’를 결성하여 이를 사회 쟁점화 하는 운동을 벌였고, 90년에는 제3세계 관광에서 아동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연합체가 결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91년 ECPAT이라는 이름의 국제연대기구가 출범했다.

2006년 이후 매년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주요수요 국가(아동 성매매 관광 송출국가)로 지목되어왔다. 또한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많이 찾는 국가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다.

특히 한국은 IT강국으로 인터넷을 통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며, 한류로 높은 한국 남자의 이미지를 악용한 아동 성매매 관광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해 힘써온 (사)탁틴내일은 2004년부터 ECPAT의 한국지부(ECPAT Korea)로 가입하고 국제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ECPAT International은 1999년 제1회 국제 의회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전체 의회를 개최하는데, ECPAT Korea는 2005년 제 3회 국제 의회부터 2014년 제 6회 국제 의회까지 모두 참석했고 국제연대를 통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성착취의 이슈와 전략적 계획 등에 공유하며 국제적으로 연대하여왔다.

2005년 제 3차 국제의회 때는 사이버공간, (컴퓨터) 기술과 CSEC, 아동 성 수요, 소년 성매매, 국가 단위의 실천 계획 모니터링 성매매와 CSEC, 2008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4차 국제의회 본

의회에는 약 30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성 착취 지적, 다양한 아동 성 착취 원인을 고려한 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2011년 제5차 국제의회에서는 국가별 온라인 상의 아동 성 착취, 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핫라인,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결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014년 제 6차 국제회의에서는 자원봉사관광, 아동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등이 주요 주제였다.

2) 한국인의 해외 아동성착취 실태조사 ‘키리바시’ 아동 대상 성매매 실태조사

2004년 11월 (사)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태지역 행동계획이행 점검회의’에서 한국외향선원의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 여자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심각하고, 이 여자 청소년들을 ‘te kore korea’(꼬레꼬레아)라 부른다는 유니세프의 보고를 접했다. 이에 키리바시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2005년 6월 한국선원의 키리바시 청소년 대상 상업적 성착취 실태를 조사했다. 한국 선원들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청소년 및 여성들 24명 중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가 7사례이며 18세 미만에 한국 선원과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가 두 사례로 미성년자가 3분의 1이 넘었으며 최하 연령은 14세였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1) 우선 한국원양어선 키리바시 정박 금지와 시급히 추후대책마련 2) 한국선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 강화 3) 해양수산부와 원양어업계의 키리바시 청소년 지원 4) 선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5) ‘꼬레꼬레아’라는 말 사용 중지 공식 요청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했다. 원양어업계는 키리바시에 배를 정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6개월 정도 약속을 지켰으나 해수부의 무관심으로 다시 정박했다.

우리는 ‘키리바시 아동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성의 아동 청소년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으로 총 5개국의 엑팟 대표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대만을 초청하고 국내 정부 해당 부서들 관계자가 참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에서 그 심각성을 수면위로 공론화 시키고 정부기관과 의견을 공유 했다. 그 후 국가 청소년위원회와 논의하여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협회 등과 함께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실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에어 프랑스 처럼 항공기 내 방영을 위해 아동 성 관광 근절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등 실추된 국격을 되찾는데 힘썼다. 하지만 여전히 적극 나서야 할 해양수산부와 기업 쪽은 소극적이었다.

✿ 키리바시 현지조사

조사 대상이었던 24명은 14세 1명, 15세 1명, 16세 1명, 17세 3명, 18세 1명, 19세 4명, 20세 3명, 21세 3명(1명 임신중), 22세 4명(2명 각각 4개월, 9개월 아들 있음), 24세 1명, 25세 1명(임신중), 미상 1명(10개월 아들 있음)이었다.

✿ 코피노(Kopino)

'Korean'과 '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한다.

필리핀 코피노 현황 조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06년에는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 한국 남성들의 가학적 성향, 콘돔 사용 기피로 인한 필리핀 여성의 임신과 출산(코피노)문제를 지적했고, 젊은 유학생들의 성매매 문제 등을 처음 직면했다. 같은 해에 태국에서도 성 관광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밤 길거리에서 만나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한국남성들의 현지 성매매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지탄을 받아왔다.

✿ 필리핀 코피노 현황조사

2011년 엑팟 국제회의에서 만난 필리핀 대표의 요청으로 두 번째 필리핀 현장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2012년 7월 2일부터 7일 총 6일 간 한국남성에 의한 필리핀 아동청소년 성매매관광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리핀의 마닐라지역과 앙헬레스지역, 세부지역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한국남성의 성매매관광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남자들은 유독 13, 14세 어린 여성을 찾는 경향이 있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성을 웃돈 주고 사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현지인들은 코피노(Kopino)의 수가 1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사결과 '한국 남성의 성 착취' 유형은 1) 성매매 관광 2) 기업파견 임직원의 현지처 3) 유학생들의 성착취로 나뉘었다. 또한 한국남성들은 피임을 거부하고, 음란물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적이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거절하면 약속한 돈을 안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성매매를 한다고 했다. 어떤 여성은 현장조사팀인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하니, 한국 남자 만나서 당한 일이 떠올라 우리를 봐도 분노할 것 같으면서 만남을 거절하기도 했다. 한국 남성들에 의해 무책임하게 버려진 코피노 아이들이 살고있는 가정방문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실감하고 왔다.



키리바시 현지조사(2005.6.24~27)



필리핀 코피노 실태조사(2012.7.2~7)

이 조사 이후 2013년 ‘필리핀 코피노 실태보고 및 해외아동성착취 근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버려지는 ‘코피노’ 아동의 실태와 심각성, 한국남성의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곧바로 국회 남윤인순, 인제근, 서영교의원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토론회를 열어 또다시 국회와 정부부처와 공동 대책을 논의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3) (사)탁틴내일(ECPAT Korea)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활동

2009년부터 2012년까지 ECPAT International은 전 세계적으로 2천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The Body Shop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해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전 세계 50개국에서 아동 인권을 위한 서명운동에 7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으며 청원서가 UN에 제출된 바 있다. 탁틴내일도 이에 동참하여 ‘STOP,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캠페인을 벌였다. 심각한 문제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버려진 코피노 문제를 위해 ECPAT Korea는 2012년부터 코피노 아버지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락이 두절되어 자녀의 양육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 아버지를 찾는 프로젝트이며, 친부에게 연락을 취해 자녀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인신매매 조장하는 해외 아동 성매매 처벌하라!

아직도 해외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카페동호회 등을 통해 여전히 성관광을 하고 있는 한국남성들이 많다. 한국 남성들의 이러한 행태는 지탄

을 받아 왔고 우리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토론회 개최, 캠페인을 벌여 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해외 아동성매매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가 속한 각 상임위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함으로써 집중단속이나 해당부처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2014년 '엑팟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회의'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그해 12월 '제 6회 엑팟 국제회의'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가해국과 피해국가 NGO의 국제연대 캠페인을 구체화 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5년 2월 16일,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NGO의 첫 국제연대 캠페인이 한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5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탁틴내일은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과 예방'을 위해 2015년 2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6일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을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아동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세요.'라는 5개국 NGO가 함께 결정한 슬로건으로 국제연대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간의 활동 그리고 2014년 있었던 '코피노 아버지 찾기 재판 승소' 뉴스 이후 버려진 코피노 아동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과 해외 성매매관광 등 한국남성들의 무책임한 성행동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게 되어 캠페인에 대해 여행객들의 반응도 예전과 달리 호응도가 높아졌음을 체감하였다.

해외 아동 성매매는 국내에 돌아와 처벌을 받는 범죄

2004년 이후 엑팟 한국 지부인 탁틴내일의 왕성한 활동은 해외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2007년 김·경 합동의 '해외 성매매방지 전담팀'이 서울 중앙지검에 구성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이후에는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



필리핀 코피노 실태조사 보고 및 해외아동성착취근절을 위한 간담회(2013.6.17.)



해외아동 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2013.10.7.)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관광의 문제와 대책>

수사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등 해외 성매매 방지활동 나섰고 여권법 12조 19조에 따라서 해외 성매매 혐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시행되어 현재까지 38건의 무효화가 추진되었다. 아동 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내 법적 규제는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외국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몇 년 전 조사에서 해외여행 중 아동성매매가 처벌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77.7%에 육박해 보다 제대로 알리는 강력한 캠페인 활동과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처가 필요하다.

제3장 아동·청소년 성교육 모델 개발과 전파

1. 성교육 센터 발족과 성교육의 필요성 폭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성교육센터 발족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성교육센터로 불리는 ‘내일신문 부설 성교육센터’가 1996년 5월 15일 발족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강간을 세계 3위, 낙태가 하루 6천 건에 달해 1년에 200만 건에 이르렀고 신고율은 단지 2%에 불과해 성문제 홍포화, 문란한 성생활, 퇴폐향락 문화의 범람 등이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른 때였다. 성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질 문제를 넘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1995년 창립후 성교육 한 인원이 10여 개월 만에 58,497명에 달하였다. 내일신문여성문화센터는 성교육 분과를 통해 1995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성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



성교육센터 발족식(1996.5.15)

여 45명의 예비강사들을 배출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역량 있는 성교육 전문가의 배출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성교육센터 설립이 시급함을 느끼고 성교육센터 추진위원회를 결성, 96년 5월에 성교육센터를 발족했다.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사교육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성교육을 받다

성교육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성교육 신청이 물밀 듯 밀려왔지만 성교육 강사는 턱없이 모자란 상태였다. 그리고 일일이 직접 성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성교육센터의 시급한 과제는 전문 성교육 강사를 배출하는 일이었다. 자원봉사에 나설 어머니 성교육 강사 양성과 초급·중급·고급의 단계적 교육을 거쳐 전문강사 배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됐다. 강사양성인원은 1996년 한해동안 집중교육으로 295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755명이 배출되었다.

그 외에 유치원과 놀이방을 비롯하여 초·중·고교 교사들을 위한 방학 중 집중교육과정과 시민 단체와 종교단체 실무자들을 위한 지도자 과정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특히 교사대상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접 실제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1995년 950명, 1996년 1천여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았다. 2014년까지 교사가 성교육 연수를 직접 받은 인원은 3만2,886명이며 밀려오는 신청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02년부터는 사이버 원격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2014년까지 총 8,409명이 연수를 받아 교사연수자수는 총 4만1,295명에 달한다. 1997년 3월에는 교사성교육 사례발표회 '학교 성교육 이렇게 하자-모범 안 제시'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이날 발표는 교사모임 중심으로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슬라이드, 영상과 함께 재미있고 실속 있는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는데 성교육센터 개소 1주년을 겸하여 교육청과 서울시, 방송언론과 각 학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전문 성교육 강사 배출은 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학습, 다양한 성적 특성과 성폭력 유형 등에 대한 학습과 실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9년 교사 성교육

회기	교사 성교육(초급)	회기	교사 성교육(초급)
1	성이란 무엇인가	7	말썽꾸러기에 가는 희망 : 돌볼 아이 (문제청소년 모범지도사례)
2	생명의 성	8	지금,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청소년 성교육 지도방안)
3	사랑의 성	9	에이즈와 성병
4	청소년의 성(청소년과 벚치기, 21세기 청소년 삶의 전략)	10	인형극 성교육 사례발표
5	성문화와 성폭력(성폭력에 대한 관점잡기, 예방교육)	11	NIE를 이용한 성교육 사례발표(중학생)
6	영상교육(생명비디오 : 낙태와 출산, 청소년 성문화 실태)	12	모의실습

성교육 대상자, 청소년이 83% 이상 차지

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현장교육의 요구는 더욱 높아져 어린이, 청소년 대상은 물론이고 청소년 보호시설과 직장, 부녀회에서 성교육 신청이 쇄도하여 95년도 내일신문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한 성교육만 5만8,497명이 받았으며 성교육센터가 발족한 96년에는 95년도의 2배에 가까운

10만295명에 달했다. 그리고 1997년 16만8,266명, 98년 20만6,166명 등 성교육을 받는 이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1997년 일 년 동안 청소년 성교육이 12만7,262명으로 약 75.6%를 차지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으로 특화하면서 청소년의 성가치관과 성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와 실천방안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였다.

탁틴내일 성교육 통계

(단위:명)

대상 연도	청소년		성인		교사		장애인		계
	본부	지부	본부	지부	본부	지부	본부	지부	
1995	3,480		54,067		950				58,497
1996	50,000		49,295		1,000				100,295
1997	127,262		40,800	32	94	78			168,266
1998	157,229	3,260	39,155	6,363	122	37			206,166
1999	106,849	3,440	26,477	759	74	100			137,699
2000	8,045	9,089	897	4,285	0				22,316
2001	16,235	1,270	349	4,207	40				22,101
2002	121,331	4,680	5,423	93	774		38		132,339
2003	89,191	18,377	2,592	3,099	3,123	138	387		116,907
2004	100,483	10,480	3,971	5,530	2,996		1,209		124,669
2005	109,991	4,012	2,688		2,999		1,754		121,444
2006	68,860	31,088	2,687	506	2,421	100	391		106,053
2007	118,135	45,383	6,588	1,141	1,920	550	857	445	175,019
2008	119,682	96,578	3801	4,236	931	395	718	1,388	227,729
2009	95,217	60,850	9,340	9,413	2,805	350	4,739	2,532	185,246
2010	86,557	65,104	5,412	4,817	8,066	4,361	5,210	1,950	181,477
2011	69,407	78,765	719	5,050	2,901	3,054	7,567	1,825	169,288
2012	108,475	87,524	10,310	5,762	2,132	3,013	9,987	4,408	231,611
2013	92,467	81,987	5,335	6,567	5,148	3,176	10,387	5,107	210,174
2014	46,979	116,331	3,538	4,595	2,799	12,151	8,169	6,490	201,052
총계	1,695,875	718,218	273,444	66,455	41,295	27,503	51,413	24,145	2,898,348

대상과 지역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성교육 개발

그 결과 창립 이후부터 2014년까지 탁틴내일이 성교육을 실시해온 종합통계를 보면, 본부와 지

부를 합한 전체 289만 8,348명 중 청소년이 전체 성교육 대상자 중 241만 4,093명(83.29%)을 차지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성교육은 실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교육방식과 연구제작한 교구와 프로그램과 새로운 콘텐츠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시청각 효과를 동원한 성교육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효과를 나타냈다.

❀ ‘초보 여성 직장인을 위한 99가지 지혜’ 발간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는 1998년 7월 10일 ‘초보 여성 직장인을 위한 99가지 지혜’를 발간했다. 당시 직장 내 성희롱은 대개 상사에게 말단의 어린 여직원이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두고 실습기간중인 청소년들이었다. 철저한 위계질서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사회생활 경험이나 이성간의 인간관계 훈련도 되지 않았기에 더 심했다. 이런 초보 직장여성에게 성희롱도 대처하고 앞으로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으로 성장하게 하자는 뜻으로 지침서를 준비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고 간부나 CEO가 된 선배 여성 직장인과 노동조합의 여성간부들에게 초보 직장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3~5가지의 직장생활 행동지침과 똑똑한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를 받아 99가지로 줄여 출판한 포켓북이다. 항목마다 재미있는 삽화를 넣어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만든 지침서로 여자 상업고등학교와 일반고의 직업반이 있는 학교에 홍보하고 필요한 만큼씩 학생들에게 무료 배부했다. 내용은 네 분야로 구분해 ① 직장 내 인간관계 ② 직장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 ③ 업무에 임하는 자세 ④성희롱 예방법이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당부의 말이 있다.

「자신의 미래 모습과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현재의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오는 피해의식,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이 이 고정관념과 싸워온 과정에는 무수한 땀과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 온 분노에서 출발한 선배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더 열심히 노력해 극복하기도 하지만, 여성들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의 힘을 모으기도 했던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도전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출신 가정에 의해, 출신 학교에 의해 인생역정이 대충 형상화되는 그런 잘못된 사회는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탄생과 활동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성문화센터의 탄생

전문 성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 성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던 중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성교육 방법을 고민하면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탄생하였다.

아이들이 생명을 건강한 성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 같은 걸 하면 어떨까? 당시는 인터넷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전환하는 시기였고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성교육을 고민할 때였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방식의 교육,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체험형 성교육을 하면 좋겠다 싶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의 발전으로 근로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지면서 근로청소년회관의 존립할 이유가 없어지자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마침 우리가 체험형 성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하자 교육의 필요성과 근로청소년회관 중 일부를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마침내 영등포에 위치한 서울시 남부근로청소년 별관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전환하게 되었다.

성교육센터가 아닌 성문화센터로 이름 지은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문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문화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인을 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를 바꾸는 것이 함께 해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청소년이기를 바랬다.

공모의 과정을 거쳐 1999년 7월 1일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성문화센터 건립을 고민하였다. 막상 성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외국에도 성 박물관은 있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시관이나 체험공간은 없었다.

상상 속에서는 3D 입체 영화도 생각했고 3D 물플래잉 게임 같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떠올렸지만 공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그러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화에서 시작하기로 하였다. 어두운 성과 진짜 성의 모습을 대비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당시는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던 시기였기에 외국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신생아와 똑같이 만든 아기, 실제와 똑같은 아기 모형 등 성교육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형을 우선 구입하기로 하였다. 생각보다 비용이 비쌌다.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전 세계에서 그런 기

술력을 가진 업체가 한 두 개 밖에 없다고 했다.

부설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이렇게 아우성센터로 완성되었고 1999년 12월 2일 문을 열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새 출발

1995년 5월 15일 개소했던 성교육센터는 부설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개소하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될 때마다 폭주하는 전화로 일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루 종일 문의 전화를 받다가 목이 쉬어 버릴 정도였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온 교사들은 서울에 살지 않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위탁으로 1년 6개월 동안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서울시의 관리 감독이 낯설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정도라면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새로운 것도 시도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과감하게 서울시와의 위탁관계를 종료하고 신촌에 우리 힘으로 지금의 청소년성문화센터인 '탁틴스쿨 와~' 상설 성교육 전시관을 개소하였다.

제1성교육 체험관(아름다운 동행방)은 초등학교, 장애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성교육장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특히 신체

장애인의 교육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설치,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림 및 인형 주입의 교육교재를 개발하였다.

제2성교육 체험관(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성문화 체험 중심으로 한반이(35명)이 넘는 수용 기능인원으로 성교육장을 신설하였다. 대상에 맞게 교육교재들이 신설되었고 자궁방(자궁안으로), 거울방(내가 나의 몸과 만나는 공간), 방음방(내안의 나에게 말하는 공간), 역할극무대 등의 코너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였다.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1999. 12. 2)

그리고 장애청소년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장애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중심으로(이성교제, 자위, 성폭력) 제1성교육체험관(이름다운 동행) 내용을 개선하여 대상별 영상물로 제작된 장애인 인형극은 수화와 자막이 첨가되어 장애 청소년이 교육받기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따뜻한 느낌의 천, 블랙등과 형광페인트를 활용한 사이버틱 한 우주 공간,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기, 성관계에 대해 알기 등 단순한 프로젝트였고,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생명을 통해 음란물의 성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따뜻함과 안락함으로 성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다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문화대책분과위원회의 성문화센터의 전국 확대 건의를 받아들였고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전국에 설치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16개 시도에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탁틴스쿨버스'와 같은 이동형 성문화센터도 전국에 설치,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현재 전국에 52개의 성문화센터와 7개의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는 미성년 임신방지를 위해 KOICA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과 똑같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요청하였다. 2009년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 차관, 국장 등이 국내를 방문하여 탁틴내

일의 안산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신촌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연수를 받았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감명받은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는 마약상에 건물을 빼앗아 헐고 그 자리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미성년보건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0년, 2014년 4차례 탁틴내일은 도미니카를 방문해 콘텐츠 및



도미니카공화국-청소년의 성 건강과 생식 건강을 추진하는 센터 개관 (2015.2.17.)

인테리어 방안, 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 매뉴얼에 기초한 미성년 임신 방지 보건센터가 2015년 2월 17일 문을 열었다.

2015년 장애·비장애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

1999년부터 3년간 장애인아우성 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성인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되었다. 1999년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소하였으나 당시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장애·비장애 통합형의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성문화센터라는 모형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고, 그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비장애를 통합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았고, 장애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교육신청이 들어 올 때마다 거절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신촌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하와 2층에 체험관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지적장애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신체장애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 건물구조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신청이 불가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항의를 들어야 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원취약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필요성 역시 절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청소년 성교육과 상담, 교구개발 후 전국 보급 등의 활약을 해온 전문성은 있으나 교육관의 구조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동 교육버스를 지원해준 맥(MAC)에서 도와주기로 했다.

그리고 2015년 4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서울 중곡초등학교 안에 장애·비장애 통합성문화센터를 설치,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비장애통합성문화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성문화센터임과 동시에 탁틴내일의 오래 숙원을 해결하는 장이기도 하다.

3. <탁틴스쿨 와~>의 탄생과 운영

전국 어디나 필요한 청소년이 있으면 달려가는 성교육 버스 '탁틴스쿨 와~'

2002년 새로운 성문화센터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농·어촌 학교의 아이들은 보건교사조차 없던 환경에서 성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농촌 지역 아이들이라고 해서 성범죄의 안전하지는 않았다. 밤에는 어둡고 집이 드문드문 있어

위험하기도 했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누가 있는지 잘 알기에 오히려 동네 사람 모두가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빈번했다.

농·어촌지역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버스에 성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후원자를 찾았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주었다. 현대자동차에서 버스를 기증하였고 국민은행, 농협, 휴맥스 등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마침내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식성교육 체험버스 ‘탁틴스쿨 와~’가 탄생했다.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끓던 2002년 6월 22일 ‘탁틴스쿨 와~’가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탁틴스쿨 와~’는 새로운 방식과 개념의 성교육으로 인기몰이를 해나갔다. 전국 어디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는 성교육 버스는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특히 농·어촌의 아이들도 살아있는 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었다.



탁틴스쿨 와~ 개관식(2002.6.22)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출범식 및 10주년 기념행사(2012년)

맥(MAC)의 지원으로 재탄생한
‘탁틴스쿨 와~’

2002년부터 운영하던 ‘탁틴스쿨 와~’는 지난 1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구 6바퀴 반을 달려 약 26만6천 명의 아동청소년을 만났다. 성교육 버스의 수명이 다 되어갈 때쯤 세계적인 메이크업 전문 브랜

드인 맥(MAC)에서 새로운 성교육버스의 제작과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하여 2011년과 2012년 맥(MAC)의 '비바글램 캠페인'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아 Yellow, Blue 2대의 성교육 버스가 새롭게 출범했다.

❀ 맥(MAC) '비바글램 캠페인'이란?

◆ 맥(MAC) '비바글램 캠페인'이란?

'맥 에이즈 펀드'는 맥(MAC)의 비바글램 립스틱 판매액 100%를 기부하는 맥의 대표적인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다. 이 펀드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현재까지 23억 달러가 넘는 기금액을 조성해 비제약 부문 전세계 최대 규모의 에이즈 펀드다. 지난 18년간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퍼기, 신디로퍼, 레이디 가가, 리키 마틴 등의 글로벌 톱스타들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에이즈 의식향상과 예방, 조기검진과 감염자들의 복지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 비바글램 립스틱 1개의 놀라운 변화

- 5명의 신생아 에이즈 모자감염 예방
- 3명의 남아프리카인 하루 식사 제공
- 8명의 활동이 불가능한 에이즈환자 식사 배달
- 2명의 아동·청소년에게 '탁틴스쿨 와~' 성교육 지원

◆ 한국에서는 맥(MAC) 비바글램 캠페인의 기금이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에 지원되어 전국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을 포함한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탁틴스쿨 와~' 성교육의 성과

움직이는 성교육버스 '탁틴스쿨 와~'는 지난 13년동안 26만6,143명의 초중고교생의 성교육을 하며 전국을 휩쓸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2002년 개소 당시 1만2천여명으로 시작하여 1년만에 신청하는 학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2003년에는 3배에 가까운 3만2천여명이 '탁틴스쿨 와~'의 성교육을 받았고 매년 1만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꾸준히 성교육을 받았다. 10여년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던 '탁틴스쿨 와~'는 2011년에 들어서 다시 폭증하기 시작, 2012년 2기 버스의 등장과 함께 다시 신청자가 급증하여 2012년 2만4,658명, 2013년 2만3,700명, 2014년 2만 6,753명을 기록하였다.

4. 새로운 도전, 장애인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 아우성 대회’, 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

1999년부터 3년간 이어진 장애인 아우성 대회는 행사 중심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당당한 성적 요구를 위해 시설, 학교,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장애인 당사자 성교육에 집중하였다. 2000년 ‘2회 장애인 아우성 대회’에서는 장애유형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발표하여 장애인성교육을 일반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장애우 아우성 대회(1999. 11. 25)



3회 장애인의 아름다운 성 만들기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2001년)

2001년 ‘3회 장애인의 아름다운 성만들기-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에서는 현재 ‘장애인 푸른 아우성’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경, 용석정 씨 부부의 결혼식(주례 최영희), 장애인 성교육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시상식이 있었다.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는 성교육이 전무한 상태였다. 모든 장애유형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성교육을 위한 교구개발에 집중하였다. 시각적 자극을 위한 그림자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성 표현방법을 역할극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인형을 활용한 성교육’, 장소와 관계에 따른 친밀감 표현을 익히기 위한 현장교육(바깥활동), 성교육 캠프 등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성 표현방식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부끄러운 인권,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강제 불임수술

1999년 8월 국회의원 김홍신(金洪信)은 ‘장애인 불법 강제 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조사한 결과, 전국 60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중

8개 시설에서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총 75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83년부터 98년까지 불임수술을 받았다.”며 장애인 시설 명칭과 피수술자 명단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6대 특별지원사업으로 14개 시설에 대한 성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12개 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두 곳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의 성교육강사가 장애인 성교육을 주1회 년 30회 이상 진행하였고, 교사 간담회,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시설 내 성폭력, 부적절한 성행동 지도 및 개별 성상담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변화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외부 전문 강사의 성교육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어 이후 체계적인 장애인 성교육을 위한 장애인 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였다.

지적장애인 및 장애·비장애 통합 성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강사 배출

성폭력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삶,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성교육 내용을 이해할까? 효과가 있을까?)과 성교육 방식의 부재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접 교육은 없는 상태였다. 탁틴내일은 장애·비장애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는 성문화를 위해 1999년 초부터 특수학교 보건교사, 복지관 성상담 담당교사, 성교육 강사들이 모여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장애인 아우성 대회를 시작으로 성교육센터가 새롭게 주목한 성교육 대상은 성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었다.

꾸준히 장애인 성교육, 성상담을 하며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구리시장장애인복지관, 울산시장장애인복지관, 부산장애인복지관, 경남장애인복지관 등)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애인성교육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장애·비장애 통합성교육, 다양한 매뉴얼과 교구개발

2008년에는 ‘통합학급에서의 성폭력 현황과 장애인 성교육의 방향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0년 ‘아동청소년성보호프로그램매뉴얼(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중 지적장애아동편을 제작하며 강의계획안의 내용 성교육 중에 장애청소년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개발하였다. 2012년 장애·비장애 통합성교육매뉴얼 개발(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장애 성인권 교육 매뉴얼(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과 교구 개발, 시범운영하였다. 2013년 ‘장애인 성인지적 인권교육 교육매뉴얼(중복장애학생을 중심으로)과 교구 개발 및 시범운영하였다.



2013년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2002년부터 체계적인 장애인 집단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작하여 2003년 387명에서 2004년 1,209명으로 3배 가까이 높아졌고 매년 전문강사의 배출과 꾸준한 성교육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09년에는 4,739명에 이르렀고 2012년 9,987명, 2013년 1만 명이 넘는 10,387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2014년까지 총 51,413명의 장애인(대부분 청소년)이 탁틴내일을 통해 성교육을 받았다.

☞ 장애인 아우성 현장

성(性)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모든 사람은 성적 존재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 속에서 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성적권리를 가진다.

1. 장애인의 성은 생명, 사랑, 쾌락이 어우러져 표현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성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3.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성적 표현에 있어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성과 관련하여 멸시, 추행, 그리고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성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권리와 이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며, 필요한 보호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다양한 매체와 문화 활동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 1999.11.25 '장애우 아우성대회'에서 채택되고 현재도 '장애인 푸른 아우성'에서 이 현장을 기본으로 활동하고 있다.

5. 성폭력 가해 청소년(성인) 교육

“선생님, 미리 알았다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한 집단상담교육(청소년수강명령교육 40시간)을 받은 고1 청소년이 선생님에게 한 이야기이다. 청소년 가해 학생들이 성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라. 청소년의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그만큼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소년성상담소는 1997년 1월 3일 상담 개시 후 청소년, 성인, 부모 등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상담에서부터 성폭력 피해 회복 도모 및 성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가해 상담을 시작하였다. 또한 고봉중학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등 소년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가해자이거나 성범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성범죄 예방교육 활동을 하였다.

2002년 청소년 성비행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성폭력)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한 집단상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40시간 성매매사용 프로그램과 성폭력가해자용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대상별 프로그램 지침서로 집단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 수강명령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청소년 및 보호자특별교육)되어 현재까지도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처법 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수강명령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여 가정-사회 간 협력으로 청소년들의 탁틴인 세상을 위해 힘써왔다.



정심여자중학교 집단상담(1997.9)

성폭력 가해청소년 인지행동치료 및 전문가 양성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3년 성폭력가해청소년 치료를 위해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인지행동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추진하고 2005년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탁틴내일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841명, 2014년 914명의 청소년이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받았다. 이 사업은 전국 교육청 소속 근무 상담교사 및 상담사,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을 선발하여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선발되어 두해동안 교육 받은 강사는 기본교육 313명, 심화교육 338명, 보수교육 208명으로 연인원 859명이었다.

가해청소년 부모교육도 확대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보호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 아동·청소년이 자연령화 됨에 따라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의 자연령화 추세에 따라 2014년에는 10세 미만 성적 가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개별 사례에 맞게 부모교육·아동교육·심리치료를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더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청소년기, 성인기 성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교육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예방책이 되어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더욱 전문역량을 높여가야 할 부분이다.

☞ 뉴미디어를 빠르게 활용하다.

문열자마자 방문객이 폭증한 PC통신 성교육

1999년 전후로 통신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 시대에서 ISDN, 케이블 모뎀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통신 환경의 변화 속에서 탁틴내일은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에 빠르게 대응하여 온라인 공간 속에서 다양하게 청소년과 임신부, 부모, 교사들을 만나고 정보 공유와 상담, 사회변화 운동을 함께 했다.

1998년 유니텔의 제안으로 성교육, 성상담, 산부인과 만족도 등을 담은 성교육 서비스를 준비하여 개통하니 하루 만에 접속자가 폭증하였고 이를 본 경쟁사에서도 앞다투어 함께 서비스할 것을 제안하였다.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4대 통신사로 확대했다. 예상 보다 많은 사람들이 PC통신에 접속하여 관리가 어려웠고 PC통신 서비스 경험을 교환 삼아 케이블 모뎀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999년 홈페이지(www.ausung.net)를 개설하였다.

인터넷 공개 상담실에 상주하던 청소년들, 사또가 되다.

홈페이지 역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당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드물었고 특히 성 고민을 이야기하는 온라인 상담실은 전무한 상황에서 등장한 탁틴내일의 상담실은 성적인 고민은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끄끙 앓던 아이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던 것 같다.

하루에 500~1,000건의 상담글이 올라오고 이를 실무자들이 감당하기 벅찼다. 활동과 실무를 겸하면서 매일 올라오는 글에 답변을 달기느라 이성한 글 삭제하기에 급급하기 일수였다. 그러던 중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실린 답글들이 꽤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홈페이지 상담실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인터넷에 답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사이버 또래상담원’을 줄여 ‘사또’라고 이름 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기수별 사또의 회장은 여사또라 하여 동아리를 운영하며 정식 상담원과 다른 아이콘을 붙여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또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성한 글도 바로 삭제되고, 전문상담원들은 사또가 대답한 답변에서 문제 있는 경우만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상담실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사이버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2002년 탁틴스쿨 와~를 개소하면서 사이버청소년성문화센터도 함께 열었다. 최초의 멀티미디어 교육전시관을 표방한 사이버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당시 새로운 기술이었던 플래시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그 때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송이의 외출〉, 〈정자, 난자를 만나다〉, 〈사춘기 몸 변화〉 플래시 e-book 〈룰루랄라 채티켓〉 등은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탁틴내일 홈페이지는 랭키닷컴 순위에서 청소년커뮤니티 분야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제4장 청소년과 함께 한 활동

1. 힙합 페스티벌

청소년이 성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성문화의 주체로

90년대 후반 PC통신의 발달로 음란물유통과 음주흡연 약물·유해업소 등의 유해 환경이 증가 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같은 달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PC통신의 빠른 발달은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1999년에는 모 연예인의 ‘A양 비디오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버젓이 돌려보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의 그동안의 성교육 활동, 터키탕 첼페운동 등이 바탕이 되어 1998년 방송을 통해 ‘이우성’이 온 국민의 유행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열망을 바탕으로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청소년을 성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당시 유행 초기였던 랩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청소년 문화행사를 함께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축제로서 랩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다.

반향의 코드 ‘랩’에서 청소년의 창의적인 축제로

‘랩 페스티벌’ 이전에 ‘안산내일여성센터’는 1998년 10월 ‘제1회 청소년 댄싱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청소년기 고민과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에서 개최 한 것이다.

‘랩 페스티벌’이 처음 열린 해에는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 예선 행사를 개최하여 서울의 5개팀, 부천, 안양(군포에 출전한 안양팀), 군포, 대전, 천안, 수원, 대구에서 진출한 12개 팀이 경연을 하였다. 이때는 랩이라는 장르가 청소년들이 자유자재로 부르기 보다는 듣고 즐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대도시 외의 지역별 예선에서는 랩에 국한하지 않고 댄스경연, 락공연과 함께 진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역예선은 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축제로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최초 전국대회 대상은 Bornslang(본슬랭-한성백, 김정철, 하승호, 최병창)의 ‘거울속의 나’와 최우수상 TRUE PLAYAZ(수원)의 ‘위성부기(위태로운 성을 다시 일으킨다)’가 수상했다.



2002년 제 4회 힙합 페스티벌

랩의 가사에서 1회 페스티벌은 결코 늦지 않았다며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을 원론적으로 외쳤다면 2회 때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원조교제, 접대문화에 대한 비판과 세상을 바꾸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차츰 청소년 인권, 안티폭력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주제가 있는 랩 경연은 청소년들에게 시대적 저항의식을 담아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밝은 청소년 문화 공간 창출에 의미가 있었고, 힙합댄스를 위해 고난도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음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땀과

노력이 소중하며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반항의 상징인 욕설을 동반하는 랩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대중문화를 자신의 생각을 아무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힙합이라는 그릇에 청소년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댄스 외에 공부에 관심이 없던 청소년들이 상을 타면서 학교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고 학교생활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고유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힙합이 소위 문제아들의 길거리 문화가 아닌 밝은 청소년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1년 동안 준비하며 대회를 기다렸다.

제6회부터는 타틴 아우성 힙합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2006년의 7회부터 이후 2008년 9회까지는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다양한 축제를 개최했던 군포지부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때부터는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행사를 주최하게 된다. 이렇게 10여년이 흐른 사이 힙합은 가장 강력한 대중문화가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창작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고, 일찍 부터 청소년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기조를 형성한 사업이었다.

☞ 1999년 5월 29일 처음 ‘아우성랩페스티벌’ 개최.

1부에서는 아우성상과 어우성상을 발표하고, ‘드렁큰 타이거’의 초청공연과 2부를 ‘아우성 랩 페스티벌’ 3부는 가족한마당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에 개최한 것이다.

제1회 대회 심사위원장은 당시 HOT, SES 소속 기획사인 SM기획의 캐스팅 디렉터인 김기 범씨였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닥쳐’ ‘Fuck’ ‘부쉬버려’ 등의 가사에 익숙해져 있던 자신에게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솔직한 표현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동안 국내 어느 무대에서 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가사의 랩 경연대회”라고 했다.

당시 문제아로 인식되고 음지에 있던 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그들의 끼 그리고 청소년의 대중문화가 밝은 성과 함께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계기도 되었다. 대중문화와 창의적인 청소년의 결합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문제로만 여기고 어른세대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청소년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볼 수 있었다.

2. 꿈꾸고, 나누고, 소통하는 청소년 활동, ‘꿈.나.소’

힙합페스티벌과 방송페스티벌은 1999년부터 시작했고 2000년부터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당시 청소년의 놀이 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청소년프로그램이 청소년들 가까이에 많이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이었다. 내일여성센터는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 캠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YP, 청소년동아리, 문화존 및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부가 성인권보호 및 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업이 집중되었다면 지부는 성교육·성상담,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안산은 청소년자원봉사와 결합된 청소년 활동, 군포는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축제와 국제성취포상제, 수원은 청소년자원봉사 및 환경 프로그램, 전주는 성문화캠페인을 특성으로 하면서 활동하였다.

多色캠프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 캠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0년도에 우리는 캠프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 ‘여기서 어떻게 자?’ ‘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던 청소년이 평창의 한 폐교(홍정리 초등학교)에서 4박 5일을 지냈다. 그렇게 꿈.나.소의 첫 번째 캠프가 시작되었고, 청소년 캠프의 서막을 열었다. 그 후로부터 2년 뒤인 2002년에는 청소년성장훈련캠프, 또래지도자양성캠프, 성(10

대의 성, 임신, 성매매, 연애, 등), 원폴이(진로)캠프 등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 다른 담을 허무는 캠프(또담캠프)를 운영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청소년 미디어캠프(UCC제작), 청소년 비장애·장애학생 통합 자연체험캠프, 리더십캠프(지도자양성) 등 여러 가지 색채를 띤 캠프를 운영하였다.

아이들은 대부분 일일프로그램이나 단회기성 프로그램보다는 숙박형 캠프 프로그램을 가장 오랜 추억으로 간직한다. 캠프 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소감들이 많았다. 이렇게 탁틴내일은 2000년도부터 15년 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캠프를 통해 경험과 추억을 선물했다.

문화운동 프로젝트

2002년부터는 ‘성(이성교제, 청소년성매매, 양성평등, 기타 등)’을 주제로 한 연극제를 개최하여 문화 활동의 차원에서 ‘성’을 표현하는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지금도 교육을 진행하면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불과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청소년에게 연극제를 수단으로 자신의 끼와 생각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성’을 주제로 한 거리캠페인이 함께 진행하였다. 이 연극제와 캠페인은 성공적인 문화프로젝트였다.

2003년에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벽화그리기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역사회에는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는 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서울시, 대학생벽화전문자원봉사단 ‘담쟁이’는 탁틴내일과 공동주관한 프로젝트로 청소년이 직접 한 해 동안 6개의 학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꾸미고 학교폭력 예방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청소년 오지캠프(2000)

미디어, 우리가 따라간다!

급속도로 발달된 인터넷으로 인해 오늘날 청소년들은 미디어매체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탁틴내일에서는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다. 2001년 처음으로 탁틴청소년 기자단이 운영되어 총 4기의 기자단을 배출했다(본부). 안산지부와 군포지부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자단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청소년 기자단은 언론보도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신문 바로읽기, 올바른 기사작성, TV광고의 이해, 영화와 사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미디어를 바로보기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했다. 이 때 본부에서는 총 89명의 기자단원들이 배출되었다. 미래의 기자나 언론인, 방송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탁틴미디어 페스티벌(뉴스, 방송, 사진 공모전)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활발한 미디어에 청소년들의 생각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서로 공유하며 청소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미디어물을 생산하여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주제를 청소년인권 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기도 하였다.

미디어페스티벌에 참여한 청소년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출품하여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우리는 많은 작품들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볼 수 있었다.

2003년~2005년 미디어동아리 미(ME)동(動)을 운영하면서 시대에 따라 2009년 세계시민학교 미디어캠프, 2013년 클린아이 동아리(미디어리터러시 향상), 청소년에 의한 미디어 정책겨루기(미디어와 관련된 정책제안), 미디어 발전에 따라 현재도 미디어와 관련된 청소년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YP 프로그램 (2012)

CA, YP(청소년 스스로지킴이)활동에서 배우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중학교에서 CA(창의적체험활동)활동과 연계하여 '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단기성 성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반 단위로 참여하여 1년 동안 CA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교육시작과 끝의 아이들의 변화는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성장되어 있었다.

이후 2010년, 2011년에는 YP활동이 중점적으로 운영되

었다. YP(youth patrol: 청소년스스로지킴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접하더라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힘파워먼트! 청소년 정책겨루기

국가 정책? 어른들이 정한 약속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다.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실제로 반영하면 어떨까?' 그렇게 청소년 정책겨루기가 시작되었다.

2012년 제1회 청소년 정책겨루기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은 각자 팀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청소년 팀들은 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처음 탁틴내일의 의도는 자유로운 열린 테이블 토론회였지만, 토론과 더불어 신선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발전했다.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놀라운 점들이 많았다.

2012년에 정책겨루기의 참여한 모든 팀이 국회 여성가족부 상임위원실에 방문하여 청소년정책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특히 대상을 받은 GSGT팀(온라인 선정적 광고 근절)은 온라인 선정적 광고 근절을 위한 국회청원과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 후 2013년에는 청소년에 의한 미디어 정책겨루기, 2014년에는 제 3회 안전을 주제로 청소년 정책겨루기가 진행되었다.



청소년 정책겨루기 (2013)

매년 성장하는 청소년과 함께 정책겨루기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겨루기에서 발표된 아이들의 정책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참여 사업을 할 것이다.

제5장 부모와 아기 중심의 출산육아문화바꾸기 운동

■ 택틴맘 : 산모와 아기중심으로 출산문화바꾸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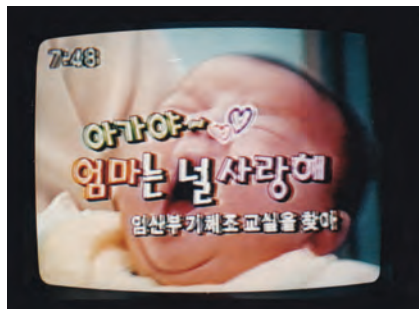
웃으며 아기를 낳자 - 아기와 엄마를 위한 자연분만 운동

세계 최고의 제왕절개 수술률을 자랑하던 1996년 7월에 임신부기체조교실이 내일여성센터에 설립되었다. 임신부들이 체조를 하고 분만호흡법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은 임신부기체조교실뿐이었고, 몸이 무거운 임신부들이 서울 신촌 본부에 인천, 부천 등 먼 거리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3회씩 다녀가는 보기 드문 모습들을 보였다.

당시 첫 임신을 한 젊은 예비부모들은 임신은 기쁜 일이었으나 출산은 공포의 순간이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출산 장면이 갑작스런 통증이 몰려오며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으로 묘사되었다. 임신은 숙명과 같은 여성들의 몫으로 치부되어 출산의 고통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것조차 유난스럽게 여겨졌던 시대였다.

그리고 당시 산부인과병원에서는 의사에 따라 자연분만을 편차도 크고, 분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모유수유 촉진 호르몬 분비를 지연시키는 분만촉진제가 산모의 동의도 없이 남용되었다. 남편이 분만실뿐 아니라 대기실에서도 함께 할 수 없는 병원도 많았다. 그래서 기체조교실에서는 임신부 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관점을 갖게하고 산부인과를 잘 선택하는 것, 분만 시 무조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에게 좋은 선택을 하게 하기위한 준비 또한 자연분만 성공에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기체조를 하던 회원들은 병원에서 출산 중에도 제왕절개, 유도분만 권유 등 의사들이 중요한 제안을 하면 임신기간을 함께 했던 담당 기체조 강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논하며 자연분만을 포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결정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기체조 강사들은 강사일 뿐 아니라



SBS출발모닝와이드 방영(1997)



초창기 기체조교실 모습

선배 엄마로서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임신기간과 출산 시에 산모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임산부기체조의 확대를 위해 1997년 4월에는 임산부기체조 단행본 「웃으며 아기를 낳자」(석탑)를 발간했으며 안양뉴코아, 창원 대동백화점 문화센터, 대구제일병원 출강을 시작 하였다. 회원 수가 최대였던 2000년 한 해 동안 서울 본부의 연인원이 4,680명, 출강인원이 9,104명에 달했고, 또한 내일여성센터 지부에 기체조교실 설립을 확대하여 2000년에는 잠실, 군포, 부산, 수원, 일산, 분당, 천안 9개 지부가 운영되었으며 백화점 문화센터, 산부인과병원 등으로 출강을 확대하여 전국 31곳에 출강을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미혼모 시설인 애란원 출강으로 장애인 임신부, 미혼 임신부 등으로 대상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지부와 회원의 확대는 그만큼 젊은 부부들이 산모와 아기 중심의 출산을 열망하였고 그런 바람을 기체조교실이 담아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열망에 부응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 7회의 임산부기체조 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하여 강사를 양성했다. 2000년 초 한겨레 신문의 출산문화에 대한 기획기사가 실리고 SBS TV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에서 산모와 아기 중심의 출산에 대해 방영되었다. 또한 본 기체조 교실에서 수련하고 순산한 뮤지컬 스타 최정원씨의 수중분만 경험이 책과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예비부모들이 의료진 중심의 출산행태를 거부하고 아기와 엄마를 위한 '재래식' 출산방법을 찾게 되는 흐름이 출산문화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태교연구회(대표: 박문일 교수)가 자연분만운동을 표방하며 만들어지고 전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백화점 문화센터, 요가원 등에서 임신부 요가, 임신부 체조, 출산준비교실 등이 만들어졌으며 내일임산부기체조교실에서만 하던 일들이 전국에 있는 유관 기관으로 파급되었다. 이후 멀리서도 기체조교실에 오던 회원들이 가까운 타 기관을 이용하면서 회원이 점점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NGO로서 좋은 모델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 사회에 파급시켰다는 면에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02년 9월에는 '탁틴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6년에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제왕절개 분만감소 홍보교육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제1회 임산부의 날이 제정되면서 탁틴맘이 10년 동안 임신한 부부를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념행사에서 '출산장려공로' 국무총리 표창을 권현정 소장이 대표로 수상하였다.

☼ 1990년대 우리나라 자연분만을 VS 기체조교실 자연분만을

1997년 우리나라는 제왕절개수술 세계 1위국으로 전체 병원의 평균 자연분만율은 61.5%. 개별 병원의 자연분만율은 26%에서 81.1%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컸다.(97.9.30 매일경제). 반면에 1999년 우리 기체조교실의 평균 자연분만율 78%였으며 2000년에는 80%이상을 웃돌았다. 제왕절개의 대상이되는 고령산모가 많이 찾는 기체조교실 회원들의 자연분만율은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당연히 제왕절개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례인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하고 둘째 분만을 앞둔 경우, 또 태아의 체중이 3.5Kg이상이라든가,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등, 제왕절개를 쉽게 선택했던 경우도 기체조교실에서 기체조로 순산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고 분만호흡법을 익히며 남편과 함께하는 출산을 준비 해 자연분만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모유수유운동 - 엄마와 눈 맞추며 젖 빨던 경험은 세상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기체조교실에서 모유수유운동을 시작했던 1997년 당시 '소비자문제 시민의 모임'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모유수유운동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모유만 먹이는 경우가 98년 14.1%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 수유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었다. 엄마들은 모유를 먹이고 싶어 했으나 출산 후 모유수유에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 젖 부족, 유두상처, 아기의 거부 등 문제가 생기면 쉽게 모유수유를 포기하던 분위기였다. 힘들게 모유수유를 하느니 대체품인 분유도 괜찮다는 인식도 팽배해있었다.

기체조교실에서는 1997년 10월부터 내일신문과 함께 모유 수유캠페인을 벌이며 매월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 모유수유교육을 진행해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장점을 알려나가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완전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병원과 산후조리원 선택, 모자동실 선택 등을 안내하여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가족들이 모유수유를 도울 수 있도록 남편, 친정엄마 등 가족들도 교육을 하였다.

2002년 2월 20일에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모유 수유 증진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홈페이지와 기체조 회원들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집으로 발표했다. 이 때 의료진들에게 모유수유운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기가 원할 때 어디서나 모유수유를!

7월 31일에는 세계모유수유 주간을 맞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광장에서 “아기가 원할 때 어디서나 모유수유를!”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60여명의 아기 안은 엄마회원들이 실제로 모유수유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여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동 중이거나 백화점에서 배고픈 아기에게 젖줄 곳이 없는 것에 대한 항의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당시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외출 시, 모유수유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크게 겪었고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집에 있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직장 내 화장실에서 착유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다음 해인 2003년 8월 1일에도 같은 취지로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엄마들의 젖먹이기 프로젝트” 라는 타이틀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우리는 언론홍보와 각 직장의 노동조합, 기업관계자들에게 수유실이나 여성휴게실을 설치해 모유수유를 지원하도록 주장했다. 캠페인은 직장과 공공시설에서 수유실이 확대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모유수유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사에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결실을 맺어 특히 뜻 깊은 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 모유수유 지원기구들이 비치된 여성휴게실이 늘어나게 되었다.



2002년 2월 모유수유 증진방안 심포지움 개최



2002년 7월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모유수유 퍼포먼스



2003년 8월 달리는 지하철 안 모유수유 퍼포먼스

또한 모유수유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아빠가 좋은 지지자가 되도록 출산준비부부교실에서 남편들에게 유방마사지법, 출산 직후 도와주는 방법 등을 교육했고, 2009년부터는 세계모유수유주간행사로 보건소와 협력해 아빠와 함께하는 ‘모유수유 골든벨’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출산과 육아

자연분만운동, 모유수유운동과 함께 출산, 육아는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던 문화를 남편이 함께하는 문화로 바꾸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출발은 1997년 출산부부교실의 시작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남편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참가한 남편들은 어색함에 강사나 다른 남편들과 눈도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았다. 부부교실에 억지로 참가한 남편의 태도에 아내가 못마땅해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는 부부도 있었던 시대였다.

부부교실에서는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돕는 방법을 교육하고 실습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들도 곧 닥쳐올 출산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며 아내와 함께 분만호흡을 하고 출산의 통증을 줄이는 마사지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2000년에는 산모와 아기 중심의 아름답고 건강한 출산문화를 파급시키는 출산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남편과 함께 한 감동적인 출산모습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시상하는 '아우성 비디오 축제'를 개최했다. 2003년부터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서울시정 참여사업 등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모색하던 정부, 자치단체와 함께 양성평등 출산, 육아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 이제는 분만실에서 아빠가 아기의 탯줄을 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초보 엄마, 아빠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 보람이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만족도 자료 인터넷 공개로 건강한 출산문화 확산

자연분만운동과 모유수유캠페인을 벌여나가며 임신부 개개인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기관 측의 영리와 편의가 아니라 산모와 아기 중심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98년 10월부터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나우누리 PC통신에 각 지역 산부인과 만족도 조사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만족도 내용은 병원의 제도와 개인 산모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병원의 만족도를 올린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신중해야 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고수했다. 첫째는 실명으로 올려 신뢰도를 높이는 것. 둘째는 고발성 만족도보다는 모범사례를 부각시켜 건강한 출산문화를 파급하자는 것이었다.

99년 7월부터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내일여성센터 홈페이지에 만족도와 함께 수도권지역과 부산(총 7개시)에 있는 병원 49곳, 산후조리원 22곳에 대한 정보도 올렸다. 2000년 5월 개최한 '아름다운 탄생을 위한 아우성 비디오축제' 행사에서는 산부인과 만족도 발표 및 좋은 산부인과

선정 시간도 가졌다. 2001년 2월 28일 홈페이지(www.happybirth.net)를 독립하며 만족도 자료제공을 꾸준히 확대했고, 그 결과 2001년 인터넷 사이트 방문 순위를 알려주는 Navvy에서 산부인과 파트 9개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만족도는 임신부들에게 산모와 아기 중심의 병원, 산후조리원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고 거주지역의 좋은 산부인과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항의가 온 경우도 있지만 만족도를 의식해 산모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건강한 출산문화 실천과 모유수유를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

제대혈 공여운동= 버려지는 제대혈로 난치병 아이들 살리기운동

2000년대 후반부터 임신부 관련 NGO로서 새롭게 벌인 운동으로 제대혈 공여운동과 임신부 배려운동이 있다.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으로, 백혈구 적혈구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 연골 뼈 근육 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가 있어 백혈병, 암, 혈액질환 등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제대혈 공여운동은 임신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을 모색하던 중 출산시 버려지는 제대혈 기증으로 난치병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이다. 2006년 5월 2일 '제대혈공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탁틴맘에서는 이 심포지움을 위해 탁틴맘 임신부회원 203명과 수도권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임신부 등 40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심포지움에서 제대혈 공여 활성화를 위해 산부인과 제대혈 채취와 초기 보관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각계각층 참여하는 제대혈공여 활성화 추진기구 설치, 국가차원에서 공여제대혈 네트워크 마련, 공여은행 국가지원 및 법률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2007년에는 2200여명의 제대혈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태반-제대혈 입법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였고, 그 해부터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제대혈공여 리플렛 배포, 교육 진행 등으로 제대혈 공여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임산부 배려운동

임산부 배려운동은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인 초기 임산부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뱃지 등을 통해 임신부임을 알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었다. 2006년부터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임부 배려뱃지와 가방고리를 삼성과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130,000개, 포스터 4000장

을 제작하여 탁틴맘 회원, 전국 251개 보건소, 병원, 지하철, 철도역, 시민단체, 일반 임신부, 기업 은행 본점 및 전국 250개 지점에 배포하였고 ‘임산부세상 콘서트’를 개최해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요즘은 임신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뱃지를 당연히 주고, 지하철과 버스 좌석에 임신부 배려석이 만들어 진 것도 이러한 문화가 확산된 결과이다.



2011년 출산부부교실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Anniversary

1995
2015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탁틴내일 본부



1. 1995. 3. 1.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창립식
2. 1996. 8. 15.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3. 1997년 정심여중 집단상담
4. 1998. 5. 어머니유해환경감시단교육
5. 1998. 11. 20. (청소년 성상담을 통해 본 이상 성행동) 심포지움
6. 1999년 10대 매매춘 상대자 신상공개 서명운동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
탁틴내일
본부



1. 1999년 인형극성교육
2. 2001. 9. 24. 장애인성교육 인형극
3. 2007년 청소년이 만드는 양성평등
학교문화만들기(양성평등교과서모니터링등)
4. 2002년 탁틴스쿨 와~ (성교육버스)개관
5. 2002년 사이버또래상담원 교육
6. 2002. 7. 31. 을지로입구역 모유수유 퍼포먼스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탁틴내일 본부



1. 2002년 성교육 교사연수
2. 3. 2003. 10. 13.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 수상
4. 2003. 8. 1. 모유수유 퍼포먼스
5. 2003년 제5회 힙합 페스티벌
6. 2004년 탁틴맘 평등가족 프로젝트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
탁틴내일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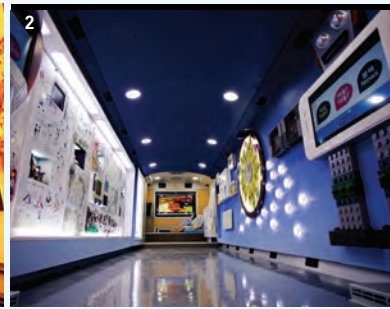


1. 2005년 탁틴맘 아기를 사진
2. 2006년 태국, 필리핀 해외 아동 성매매 실태조사
3. 2007. 8. 15~17. 청소년들의 몸부림캠프
4. 2008. 8. 1. 탁틴맘 창경궁태교나들이
5. 2009. 12. 2. 대한민국 청소년 성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제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6. 2009. 7. 27~30. 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역량강화 한국연수(도미니카공화국)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탁틴내일 본부

1. 2011년 9월, 1호 옐로우버스 오픈
2. 2012년 5월, 2호 블루버스 오픈
3. 2012. 5. 9.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 2기 출범식
4. 2012년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와~
5. 2013. 5. 9. 청소년성폭력 가해행동
재발방지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6. 2013년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강사양성교육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
탁틴내일
본부



1. 2014. 7. 19.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 발대식
2. 2014. 3. 11-14. 백령도 섬 순회 버스성교육
3. 2015. 2. 16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 ECPAT 57개국 NGO의 국제연대 캠페인
4. 2014년 바다살 캠페인과 국회청원(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5. 서울시립중앙청소년문화센터(장애·비장애통합) 개관 예정 2015. 4. 1.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군포 탁틴내일



1. 1997. 2. 13. 내일신문 임신부기체조교실
안양지부 개원 임신부순산요가
2. 2006. 제8회 합합페스티벌
3. 2006년 제5회 군포 청소년 연극축제
4. 2006년 학교폭력예방 인형극
5. 2003년 임신부건강 부부캠프
6. 2014년 애플데이 '사과의 날' 캠페인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
군포
탁틴내일



1. 2006년 7월 돌~셋 가족학교
2. 2007년~현재 청소년진로지도자 양성과정
3. 2015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4. 2013년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 2013~2014년 청소년관현악단 "멜로디에코" 연주회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수원 탁틴내일



1. 2000년 한줄로 서기 운동
2.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 기자감시단
3. 2012년 찾아가는 성교육
4. 2014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5. 2014년 바른성 지킴이 활동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
수원
탁틴내일

1. 수원시 청소년 연극제 “청연-청소년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2011~2014)
2.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꾸러기 농부학교” (2014. 7. 25.)
3. 수원시 청소년 성문화체험관 아우름 개관 (2014. 12. 19)
4. 학교폭력예방교육 “뽀뽀 애플 천사단” (2005~2014)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안산
탁틴내일



1. 전국 한 줄로 서기 운동 도입 및 의식개혁운동(1999~2003년)
2. 탁틴 힙합페스티벌 관람 청소년들
3. 2007년 탁틴 힙합페스티벌 안산 성포예술 공원
4. 2005년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우리먹거리 바로알기
5. 2007년 안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수능캠페인 활동
6. 2006 청소년유익환경조성을 위한 "탁틴 청소년 기자단학교"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
안산
탁틴내일



1. 2005년 청소년기를 밝고 건강하게
"한번 더 생각해 봐!"
2. 알성개성 축제
3. 2006년 新 성춘향전
4. 1070 효 실천단 효지순례활동 효행기념관 순례
5. 2007 안산 문화·유적지원이단 활동
6. 2005. 10. 24. "Apple Day" 화해의 날
사과로 화해의 마음을 전하세요
7. 2005.10. 6. 청소년자원봉사 어머니지도자
"제3기 배워서 남 주자" 봉사체험활동

사진으로 보는
탁틴내일 20년

PHOTO Story 전주 탁틴내일



1. 성교육 양성과정
2. 성문화축제
3. 신고자 의무교육
4.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
5. 인형극



2014. 6. 24 해외아동성착취근절 캠페인(코피노문제, 해외성매수처벌)

